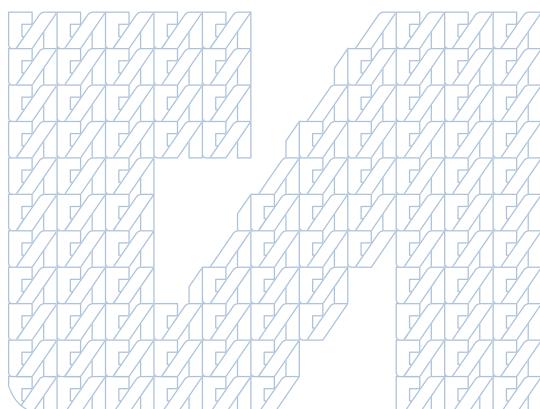


일상 예술공간으로서 보헤미안 거리(가칭) 기본구상과 추진전략

이재민 외



정책연구 2023-33

**일상 예술공간으로서 보혜미안 거리(가칭)
기본 구상과 추진전략**

이재민 外

연구책임 • 이재민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민옥 / 경성대학교 글로컬문화학부 교수
- 윤설민 / 대전세종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이자은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지원 • 채진영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조사원·한남대학교 학부과정

정책연구 2023-33

일상 예술공간으로서 보헤미안 거리(가칭) 기본 구상과 추진전략

발행인 김 영 진

발행일 2023년 9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0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 쇄 (주)경성문화사 TEL 044-868-3537 (FAX: 044-868-356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 제언

■ 우리 삶터의 거리, 예술을 입는다.

- 문화예술공간은 인간의 감수성, 공동체 의식 등이 깃든 공간으로 나아가 지역 정체성을 구현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
-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일상을 영위하는 거리와 같은 공간에 다양한 콘텐츠를 입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문화거리’,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등의 형태이며, 지역 출신 인사의 스토리를 활용하거나, 지역의 생업자원 등을 활용하여 테마 거리의 주제를 구성하기도 함
-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측면, 물리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음
 - 테마거리의 기능적 요소로는 상징적·교류적·문화적 기능이며, 물리적 요소로는 편리성·쾌적성·심미성으로 나타낼 수 있음
- 이처럼 예술 테마거리는 비일상성을 담보한, 비일상적 행위를 통해 공간의 경쟁력을 생성할 수 있으며, 심리적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제3의 장소’로서 기능할 때 가치와 의미가 나타날 수 있음

■ 예술 테마거리, 국내 사례

- 일상 예술공간의 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속성으로 ‘일상성·장소성·예술성’으로 도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사례를 선정하였음
 - 일상예술 공간으로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이태원 길, 수성못, 홍대 걷고싶은 거리,
 - 생활예술 프로그램 및 플랫폼으로서 고양 버스커즈, 부산 버스킹 플랫폼의 사례를 선정함

- 국내 사례를 통해 명칭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며, 지역자원의 창조적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적합한 운영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 세종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리 예술 콘텐츠

□ 가치누리 문화거리

- 가치누리 문화거리는 상가공실률이 높은 지역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예술가의 창작 환경의 안정성 제고와 시민 향유권, 소상공인 등 모든 주체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문화정책임
- 2020년 한솔동 노을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2021년에는 한솔동과 종촌동, 2022년에는 고운동과 보람동에서 진행하였음
- 이 사업을 통해 공실상가를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운영주체로서 시민의 질적 담보를 유도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거리공연·마케팅 등을 통해 거리 콘텐츠 사업의 가능성을 보였음

□ 세종컬처로드

- 세종컬처로드는 일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으로 문화향유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아마추어 예술가들을 발굴하여 생태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정책임
- 2020년에는 길거리공연 30회·드라이브 인 공연 1회·예술인 포럼 1회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세종거리예술가 20팀 선발과 거리공연 30회를 진행하였고, 2022년에는 세종거리예술가 20팀 선발과 찾아가는 공연 40회·거리 예술가 콘서트 2회를 진행하였음

□ 금강보행교 거점 공연

- 금강보행교의 지속적인 공연 활동을 통해 공연공간이라는 인식을 일깨우며, 이를 통한 문화명소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 2022년에는 버스킹·거리극 공연, 세종축제 기간 연계 장소특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으며, 37일 총 123회 공연, 7,260명이 관람하였음

■ 세종시 보혜미안거리(가칭) 기본 구상

□ 비전과 목표

- 세종시 거리예술 공간으로서 가칭 보혜미안 거리의 비전을 ‘시민과 예술인이 어우러지는 세종시 거리 공연예술’ 교차로로 정하고, 세종시 관내 거리공연 예술 전용공간의 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공간의 명칭으로 ‘한글’의 활용이 필요하고, 예술가·시민 공연이 공존할 수 있으며, 세종시 경관·자원의 연계 활용을 통해 특화성을 담보하고, 가치누리 문화거리와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전략을 제안하였음

□ 최적지 구상

- 최적지로는 신도심권에는 나성동을, 구도심권에는 조치원역 전정을 제안하였음
- 공간의 콘셉트로는 트러스 시설을 동반한 무대를 제안하였으며, 개략적인 예산을 제안하였음

□ 로드맵

- 예술공간 위치에 따른 로드맵으로 단기(나성동, 조치원역), 중기(도담동·반곡동), 장기(종촌동·금강보행교)로 제안하였고, 운영방식에 따른 로드맵으로 시범운영 단계 - 본격운영 단계 - 운영확산 단계로 제안하였음

■ 거리공연 관련 조례제정

-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제안함
- 이 조례에서는 음향시설의 음량, 활동 시간 등을 삽입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순환 체계를 구현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에서도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까지 진행되었으나, 이후 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차 례

1장 서 론	3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5
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과정	6
1. 연구 방법	6
2. 연구 과정	7
 2장 일상 예술공간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논의	11
1절 예술 테마거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	11
1. 예술 테마거리 개념과 범위	11
2. ‘거리 공간’의 구성요소와 특성	14
2절 예술 테마거리 조성의 가치와 의미	17
1. ‘비일상적 행위’를 통한 공간의 경쟁력 생성	17
2. 생활예술을 매개로 하는 ‘제3의 장소’	18
 3장 일상 예술공간 사례조사	23
1절 보해미안 거리 속성 도출	23
2절 국내 사례	25
1.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대구)	25
2. 이태원 길(대구)	28
3. 수성못(대구)	30
4. 홍대 걷고 싶은 거리(서울)	34
5. 고양 버스커즈(고양)	37
6. 부산 버스킹 플랫폼	39

3절 사례 시사점	42
4장 세종시 문화예술거리 콘텐츠 현황과 실태	45
1절 가치누리 문화거리(구, 상생형 문화거리)	45
1. 사업 개요 및 목적	45
2. 시기별 추진 내용	46
2절 세종컬처로드	56
1. 사업 개요 및 목적	56
2. 시기별 추진 내용	56
3절 금강보행교 거점 공연(2022년)	62
5장 일상 예술공간으로서 보혜미안 거리(가칭) 기본 구상과 추진전략 ..	65
1절 비전과 목표	65
1. 비전과 목표	65
2. 추진전략	66
2절 최적 위치 구상	68
1. 최적지 선정	68
2. 최적 후보지 검토	80
3절 콘셉트 및 사업예산 구상	83
1. 콘셉트 구상	83
2. 사업예산	85
4절 로드맵	86
6장 결론	91
1절 연구 결과의 종합	91
2절 정책 건의	94
참고문헌	95

표 차례

[표 2-1] 길(路)과 거리(街)의 개념과 의미	12
[표 2-2] 문화의 거리 유형	14
[표 2-3] 지역의 공공문화예술 공간의 콘셉트와 유형	19
[표 3-1] 버스킹존 운영 방법 및 예약 참고사항	31
[표 3-2] 서울 홍대 걷고싶은거리 신청 세부사항	35
[표 3-3] 2023.2. 기준 현재 공연장별 포인트 설정 현황(변경될 수 있음) ..	42
[표 4-1]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연도별 내용	45
[표 4-2] 상생형 문화거리(2020년) 사업 내용	46
[표 4-3] 상생형 문화거리(2021년) 사업 내용	48
[표 4-4] 상생형 문화거리(2021년) 사업 내용	50
[표 4-5] 상생형 문화거리(2022년) 사업 내용	52
[표 4-6] 상생형 문화거리(2022년) 사업 내용	54
[표 4-7] 컬처로드 사업연도별 내용	56
[표 4-8] 컬처로드(2020년) 사업 내용	57
[표 4-9] 컬처로드(2021년) 사업 내용	59
[표 4-10] 컬처로드(2022년) 사업 내용	60
[표 4-11] 컬처로드(2022년) 사업 내용	62
[표 5-1] 금강보행교 버스킹 추천 장소	73
[표 5-2] 도담동 버스킹 추천 장소	75
[표 5-3] 나성동 버스킹 추천 장소	77
[표 5-4] 무대별 사업예산	85
[표 5-5] 단계별 사업 위치 표시	87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추진 방법	6
[그림 1-2] 연구 과정과 흐름	8
[그림 2-1] ‘거리 공간’의 구성요소	15
[그림 2-2] ‘거리 공간’의 기능	15
[그림 3-1] 일상 예술공간의 속성	23
[그림 3-2] 국내 사례	24
[그림 3-3] 김광석 거리 위치	25
[그림 3-4]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거리	26
[그림 3-5] 김광석 거리 내 공연 모습	27
[그림 3-6] 이태원길 위치	28
[그림 3-7] 대구 이태원 길 지도 및 버스킹 안내	29
[그림 3-8] 대구 수성못 위치	30
[그림 3-9] 대구 수성못 버스킹존 무대 배치도 및 신청서	31
[그림 3-10] 대구 수성못 버스킹존	33
[그림 3-11] 서울 홍대 걷고싶은거리 레드로드 R1~2 장소 사용 준수사항 ·	34
[그림 3-12] 서울 홍대 걷고싶은거리 야외공연장 안내	34
[그림 3-13] 서울 홍대 걷고싶은거리 버스킹존 및 예약상황	36
[그림 3-14] 고양시·고양문화재단 운영 버스킹존	38
[그림 3-15] 부산광역시 버스킹 플랫폼 홈페이지	39
[그림 3-16] 부산광역시 버스킹존	40
[그림 4-1] 2020년 상생형 문화거리 <한솔동 노을길>	47
[그림 4-2] 상생형 문화거리(2021년) 조성안 및 포스터	49
[그림 4-3] 상생형 문화거리(2021년) <한솔동>	49
[그림 4-4] 상생형 문화거리(2021년) 조성안 및 포스터	51
[그림 4-5] 상생형 문화거리(2021년) <종촌동>	51

[그림 4-6] 상생형 문화거리(2021년) 조성안 및 포스터	53
[그림 4-7] 상생형 문화거리 (2021년) <고운동 반짝반짝 고운별>	53
[그림 4-8] 상생형 문화거리(2022년) 조성안 및 포스터	55
[그림 4-9] 상생형 문화거리 (2022년) <보람동 예술산책>	55
[그림 4-10] 컬처로드 (2020년) 사업	58
[그림 4-11] 컬처로드(2021년) 사업	59
[그림 4-12] 컬처로드(2022년) 사업	61
[그림 5-1] 비전과 목표	65
[그림 5-2] 시민이 제안한 조치원역에서의 공연예술 모습	69
[그림 5-3] 최적지 선정 과정	70
[그림 5-4] 금강보행교	71
[그림 5-5] 금강보행교	72
[그림 5-6] 도담동	74
[그림 5-7] 도담동	74
[그림 5-8] 나성동	76
[그림 5-9] 나성동	76
[그림 5-10] 유동 인구 분석	78
[그림 5-11] 각 분석 별 위치 선정 제안	79
[그림 5-12] 선정 과정 및 결론	79
[그림 5-13] 유동 인구 분석	81
[그림 5-14] 무대 예시	83
[그림 5-15] 공공디자인	83
[그림 5-16] 공연 공간 및 트러스 시설	84
[그림 5-17] 무대 및 객석 공간	84
[그림 5-18] 로드맵	86
[그림 5-19] 사업 단계별 내용	87

서 론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과정

1장

1장 서 론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한국 사회에서 ‘거리’

- 최근 한국 사회는 지역의 거리·마을·시장과 같은 우리의 일상을 응축하는 공간이 다양한 콘텐츠와 접목되면서 예술로 가득 찬 복합문화공간으로 구현되고 있음
 - 과거 이 같은 공간은 단순 이동을 하거나 삶을 영위하고,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으로 기능하였으며, 한국 사회에서는 6.25 전쟁·새마을운동 등의 정책사업을 통해 공간의 쇠퇴와 정비가 반복되었음
 -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의 거리는 인간의 존재와 역사, 기억의 실재를 오롯이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의 장소성을 구현하고 정립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2) 도시건설에 따른 문화향유 욕구 증대

- 세종시는 2030년을 목표로 도시건설 중이며, 도시의 완전한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적 정체성의 담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문화적 정체성의 구현과 담보를 위해서는 문화의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규모의 확대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새롭고 참신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문화적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구성 및 지원이 필요함

-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는 누구나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일상 예술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3) 세종시 도시건설 과정에 나타나는 높은 상가공실률 문제

- 세종시의 주요한 현안으로는 상가공실률이 높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한국부동산원 2022년 2분기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로 17개 시도 중 2위(전국평균 13.1%),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13.1%로 17개 시도 중 1위(전국평균 6.6%)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문화예술행사를 상가와 연계를 통해 집객 인원의 상가 이용 선순환 구조 마련에 따른 상가 활성화 방안 추진 중임
 - 세종시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은 지역의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지역 예술인·소상공인·시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진행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가치누리 문화거리’라는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음

4) 세종시 민선 4기 주요 공약과제로서 보헤미안(가칭) 거리 조성

- 세종시에서는 문화예술 도시 창달을 위해 민선 4기 주요 현안 과제로서 ‘보헤미안 거리(가칭)’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시민·예술가들의 문화 활동 증대를 통한 창조적인 문화예술도시 구현 등을 위한 신규 문화공간 구축·운영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로 넘쳐나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임
- 따라서 시민·예술가들의 문화적 욕구의 충족과 상가 활성화를 통한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보헤미안 거리(가칭)’와 같은 일상 예술공간의 조성이 필요함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목적 : 세종시에 적합한 예술환경 구현을 위한 ‘예술 공연장’의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 세종시 현황분석 및 지역에 적합한 사항들을 접목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추진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종시 적합한 예술환경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예술 공연장 조성과 추진에 관한 연구임
- 지역 및 정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기대효과 : 일상 예술공간의 조성을 통해 예술이 넘쳐나는 여유로운 분위기의 지역 정주 여건을 꿈꿀 수 있음

- 세종시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가치누리 문화거리, 컬처로드 등의 사업 연계를 통해 문화적 역량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음
- 지역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해 상가 활성화 등 세종시의 현안에 관한 합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과정

1. 연구 방법



[그림 1-1] 연구 추진 방법

-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자료수집은 문헌과 예상지 현장 분석, 전문가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이루어졌음
 - ▶ 문헌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등 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각 시도 연구원 보고서, 연구자 논문 등을 통해 자료수집을 진행하였음
 - 세종시 문화예술과 결과보고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결과보고서 등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자료수집을 진행하였음
 - ▶ 현장 연구
 - 예술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하는 거리 예술가 간담회에 참여하여 논의하였음

-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예술인을 반드시 포함시켜 진행함으로써 예술인의 입장을 최대한 담고자 하였음
 - ▶ 전문가 워킹그룹
- 문화정책 전문가·기획가·활동가·연구자 등을 포함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였음

2. 연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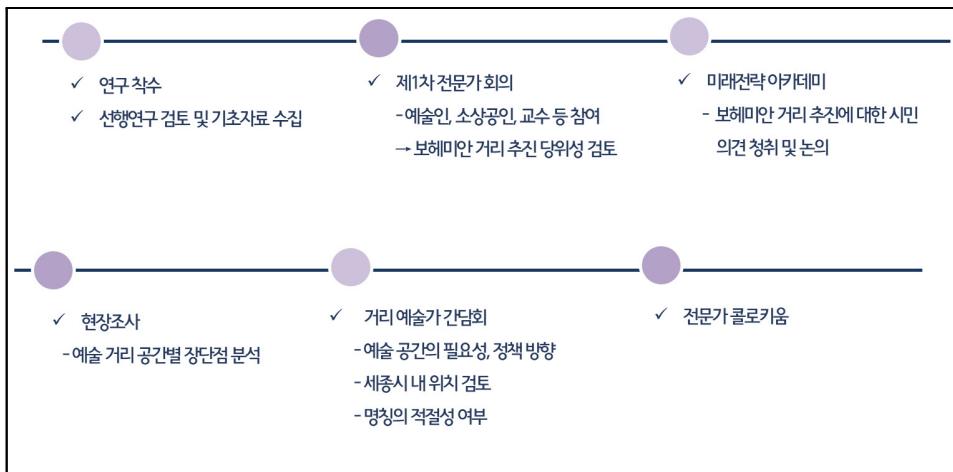
- (1단계) 연구착수
 - 문헌자료 탐구를 통한 일상예술공간에 관한 이론적·학문적 열개 파악
- (2단계) 제1차 전문가 회의
 - 지역 예술인·소상공인·교수 및 활동가 등이 참여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음
 - 일상예술 공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했으며, 개략적인 관점에서 위치와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함
- (3단계) 미래전략아카데미
 -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래전략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시민 추진단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통해 강의를 진행하였음
- (4단계) 현장조사
 - 신도시 권역 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답사를 진행하였음
 - 답사를 통해 유동 인구, 동선, 주거지 접경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5단계) 거리 예술가 간담회
 -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협조를 얻어 우리 지역 내 거리 예술가 간담회에 참여하였음

- 직접 간담회에 참여하여 거리 예술가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세종시 예술의 실태 등을 더욱 명징하게 파악하였음

- (6단계) 전문가 콜로키움

- 세종시 관계자 및 전문가, 예술가 등과 함께 전문가 콜로키움을 진행하였으며, 중간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외에도 연구과정에서 세종시 관계자와 연구진 회의를 수시로 진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했음



[그림 1-2] 연구 과정과 흐름

일상 예술공간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논의

1절 예술 테마거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

2절 예술 테마거리 조성의 가치와 의미

2장

2장 일상 예술공간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논의

1절 예술 테마거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예술 테마거리 개념과 범위

1) 문화예술공간의 주체로서 ‘인간’

- ‘문화예술공간’은 인간의 의도와 목적에 따른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 유무형의 가치가 발현되는 것을 의미
 - 공간에 대한 인식은 문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준임
 - 동물은 주로 자신의 영역을 확립하고 경계를 설정하여 자연환경에 의해 의존하는 반면, 인간은 공간을 조성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통해 공간의 의미를 발생
- 동물은 공간이 생존을 위한 터전에 불과하지만, 인간에게 공간은 시간성에 따라 다른 정신적이고 예술적 활동을 표출하는 곳
 - 따라서 개인적인 감수성과 흔적, 공동체의 소통 과정 등의 특성이 공간에 묻어나는 것임

2) 도심 ‘거리’의 의미와 공간 범위

- 거리(街)는 영어로는 대체로 ‘street’로, 길(路)은 ‘road’로 표기
 - 길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어지는 연결과 소통을 의미함
 - 거리는 길의 한 범주에 속하는 개념으로서, ‘길’이라는 개념에 포함됨
 - 거리는 점들이 움집 해서 일정한 면적과 범위가 만들어진 공간으로 집이나 건물이 늘어서 있는 범주화된 일정한 도심 개념을 포함

[표 2-1] 길(路)과 거리(街)의 개념과 의미

구분	정의	의미
길(路)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거치는 궤도	연결과 통로의 기능으로 연결의 의미 자연발생적 형성과 사회적 기능
거리(街)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다니는 길 혹은 공간	특정한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적 장치 인공적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도시 일부

- 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특정한 목적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적 장치로서 조성
 - ‘길’이 출발과 도착을 중심으로 하는 ‘이동’과 관련한 개념이라면, ‘거리’는 경험이라는 과정의 성격을 가짐
 - ‘거리’는 지역과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적 관계에 따라 의도되어 만들어지는 경향이 강하여 도시의 일부
- 따라서 ‘거리’는 특정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장소가 되기도 함. 그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와 상징적인 특징, 그 지역민들의 축적된 문화적 실천적 행위 등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혹은 거리 와의 차이를 발생시킴

3) 문화의 거리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거리 조성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조례를 제정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문화거리’,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등으로 진행되고 있음
 -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차량 이동이 활발한 도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시적으로 차량을 통제해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바꾸며, ‘일탈’과 ‘해방’을 사람들에게 경험시키는 거리 조성프로젝트로 볼 수 있음

- ‘걷고 싶은 거리’는 차량 도로나 일반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시민들의 보행권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거리 조성프로젝트로 진행. 이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 목표는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향상 시키며, 대중교통 시스템과 조화를 목적으로 함
- ‘문화의 거리’란 한 도시의 일부분으로 그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시민들이 지향하는 생활문화에 따라 조성되는 특성
 - ‘문화의 거리’ 조성은 기본적으로 그 거리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으며, 나아가 방문객에게 그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경험시키기 위한 목적에 기반
 -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목적은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도시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방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는 한편 도시의 정체성을 가꾸어 가고자 하기 위한 것임
 - ‘문화의 거리’는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욕구가 발현되고, 그 활동이 유지되었을 때 고유한 지역성으로 구축
 - 개인을 위한 공간보다는 공공을 위한 장소로 발전되어야 하며, 다양한 주체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거리문화의 지속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
-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물리적 경관의 정비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고 정립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
 - ‘문화의 거리’ 조성은 도시의 문화정책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 조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도시경관 개선, 관광 유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문화의 거리’ 사업은 공간의 시설 정비와 편의시설 조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최근에는 물리적인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적 활동과 다양한 커뮤니티의 형성과 유지에 중점을 둔 ‘문화의 거리’ 조성에 집중

- 따라서 ‘문화의 거리’ 조성이란 가로와 관련하여 상징적 의미가 강한 요소를 찾아 장소에 구현하여 더욱 의미를 보완하는 작업을 가리킴

○ 문화의 거리의 유형과 특징

- 문화의 거리는 특화 거리의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하여 특화 거리로도 불리고 있음
- 특화 거리는 일정한 거리의 범주를 설정하고, ‘테마’를 부여하여 전략적으로 관련 분야의 산업 혹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
- 국내의 문화의 거리 유형은 [표 2-2]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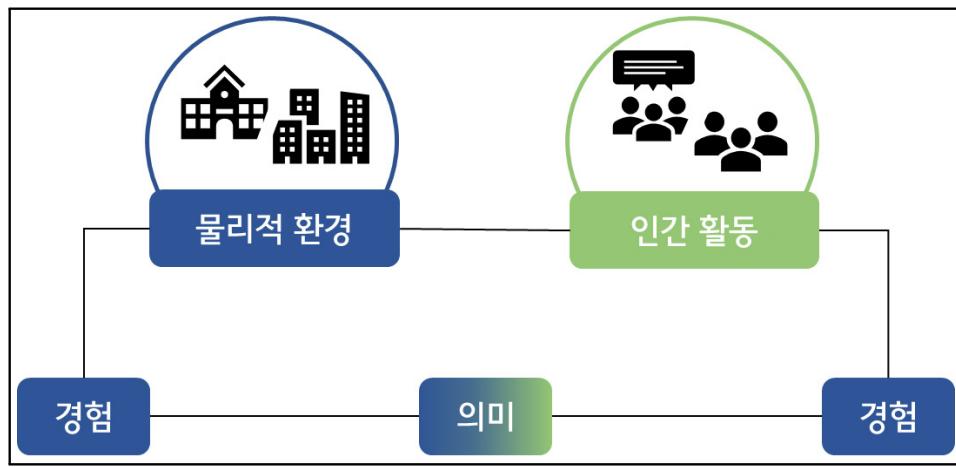
[표 2-2] 문화의 거리 유형

구분	특징
역사의 거리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를 상징하는 문화유적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을 테마화 한 거리
명사의 거리	유명한 예술인, 정치가, 과학자 등이 지역의 명사와 관련해서 조성한 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예술적 활동가들의 활동을 발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성한 거리
산업적 거리	특정 산업이나 업종을 증진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 조성한 거리

2. ‘거리 공간’의 구성요소와 특성

1) ‘거리 공간’의 구성요소

- 거리 공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물리적 환경 요소와 사람들의 문화적 행위에 해당하는 비물리적 요소가 있다. 물리적인 측면과 비물리적인 측면은 상호작용하여 종합적인 이미지나 경험을 형성하게 됨



[그림 2-1] ‘거리 공간’의 구성요소

2) ‘거리 공간’의 기능적, 물리적 기능

-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 요소
 - 테마거리 조성과 관련한 연구는 대체로 도시 활성화와 관련되며, 이를 위해서는 각 도시가 갖는 기능과 도시의 지향점을 중심으로 도시의 잠재된 요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 테마거리를 통해 도시를 활성화 방향은 크게 기능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기능적 측면은 다시 상징적, 교류적, 문화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물리적 측면에서는 편리성, 쾌적성, 심미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2-2] ‘거리 공간’의 기능

□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기능적 요소

- 테마거리의 기능적 요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상징적 기능’은 도시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수많은 유무형의 가치 속에서 현재의 지역민을 포함해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상징적 요소로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발생시킴
 - ‘교류적 기능’은 도심 내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자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을 맞이하는 공간으로서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과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그 도시에 대한 친숙함을 형성
 - ‘문화적 기능’은 도심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새로운 형태로 공유하고, 생성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관심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도시에 대한 친밀감과 자부심을 제공함
- 테마거리의 물리적 요소는 편리성, 쾌적성, 심미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편리성’은 거리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시설물 디자인, 보행자 전용 영역 개선, 사인 설치 등을 통해 거주자들이 거리를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 ‘쾌적성’은 도심 내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며 거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심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요소를 줄이는 노력을 포함한 개념
 - ‘심미성’은 도심 환경에서 제공하는 아름다움으로 건축물이나 광고 안내판, 도로 표지판 등 도심의 경관을 통해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요소가 총체적으로 결합 된 개념으로 건축물, 시설물, 파사드, 광고물 및 공원이나 가로수 등의 조성을 포함

2절 예술 테마거리 조성의 가치와 의미

1. ‘비일상적 행위’를 통한 공간의 경쟁력 생성

- 예술적 활동과 공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는 젤(2001)·카모나(2003)·슈스터(2001)·카르(1992)·화이트(1980)에 의해 연구되었음
 - 위의 학자들은 주로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 특히 거리공연, 도시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비일상적인 이벤트와 같은 ‘비일상적인 행위’가 공공공간의 활성화와 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음
- 젤(2001)은 공간에서 사람들의 안전·편리 등의 물리적 계획은 설계자의 계획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휴식·놀이·창작 활동 등 사람들의 선택과 의지에 의한 행위는 비물질적 측면이 크게 작용한다고 봄
 - 인간은 삶의 공간에서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며, 자아의 개성과 욕구를 표출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대체로 여가 즉, 휴식과 놀이 활동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으로 봄
 - 놀이와 재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활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을 넘어 그 사회의 문화 예술적 경험과 영감에 큰 영향을 줌
 - 사람들의 개인적 자유의지에 의한 활동은 도심을 활기차게 만들고 가치를 높이며, 사람들은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받게 됨
 - 공간에서 창작 활동을 자극하는 요소들을 젤은 비일상적인 것들이라고 표현
- 카르(1992)는 공공장소에서 인간은 편안함과 휴식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참여와 네트워크의 욕구를 갖는다고 함
 - 공공장소에서의 예술적 활동이나, 축제, 퍼포먼스, 공연 등을 통해 공공장소가 주는 휴식, 편안함 그리고 새로운 자극을 함께 공유하며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점에 주목함. 카모나(2003)는 이 견해를 거리의 엔터테인먼트가 공공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해석함

- 화이트(1980)는 조각가와 음악가 등의 활동을 관찰하며, 이러한 활동이 외부 자극으로 작용하여 서로를 모르던 도시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 이를 ‘삼각접촉’이라 설명
 - 화이트는 거리에서의 예술 활동의 가장 큰 의미는 ‘우연성’에 있다고 봄. 즉 전시장이나 공연장에 준비된 관람자가 방문하게 되는데, 거리의 예술은 우연히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그 과정에서 예상 밖의 상호작용과 장소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 슈스터(2001)는 축제 및 유사한 이벤트를 ‘에피메라(ephemera)’로 정의하며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탈적인 경험이 ‘일상적인 도시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비전과 영감을 제공한다’고 설명
- 제이콥스(1961)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유혹이라고 주장하며, 도시 계획자와 디자이너들은 종종 이러한 측면을 간과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2. 생활예술을 매개로 하는 ‘제3의 장소’

- ‘생활예술’이란 전문예술 활동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며 자신의 삶과 공동체적 유대에 기여하는 예술 활동을 총체적으로 의미함
 -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자발적 예술(Voluntary Arts)’, ‘참여 예술(Participatory Arts)’, ‘공동체 예술(Community Arts)’이 주요 활용되고 있음
- ‘제3의 장소’는 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덴버그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서 그는 현대인의 생활이 일어나는 공간을 세 가지로 분류함
 - 완전한 휴식을 위한 공간인 가정을 ‘제1의 장소’ 경쟁과 효율성의 공간인 직장을 ‘제2의 장소’ 그리고 그 이외의 공간을 ‘제3의 장소’라고 설명하였음

- ‘제3의 장소’란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상 속 시간을 보내는 공간들을 의미하고, 나아가 평안한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함
 - 올덴버그에 따르면, 매력적인 ‘제3의 장소’가 되기 위하여 공간이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이러한 공간은 주로 집처럼 편안하고 무엇이든 누구에게나 열린 환경이어야 하며, 방문자들에게 일상의 일부로서 환영받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또한, 주로 유쾌한 분위기에서 계속되는 상호작용과 토론을 위한 장소로서 역할
-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매력적인 ‘제3의 장소’는 생활예술을 매개로 만들어질 수 있음
- 생활예술은 일상과 동떨어져 범주화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서 누구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일상 속 공간에서 수행하기에 적합
 - 아마추어적이고 자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공간에 유희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됨
 - 표현하고 싶은 바를 표현해보고, 예술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모여든 사람들 간에 생각을 공유하며 예술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기도 함
- 지역의 문화예술을 매개로 제3의 공간으로서의 컨셉과 기능 유형을 나누면 다음과 같음

[표 2-3] 지역의 공공문화예술 공간의 컨셉과 유형

no	컨셉트	기능
1	참여의 공간	다양한 예술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공간
2	공유 공간	역사적 가치와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공간 공유
3	사회적 공간	지역민의 여가, 휴식, 모임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4	지역지원센터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5	지역민을 위한 공간	지역주민이 직접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
6	예술가를 위한 공간	지역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공간

일상 예술공간 사례조사

1절 보헤미안 거리 속성 도출

2절 국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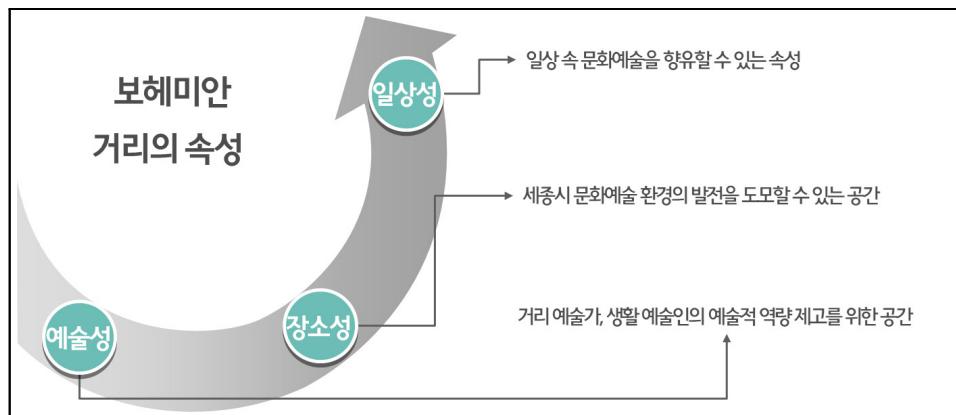
3절 사례 시사점

3장

3장 일상 예술공간 사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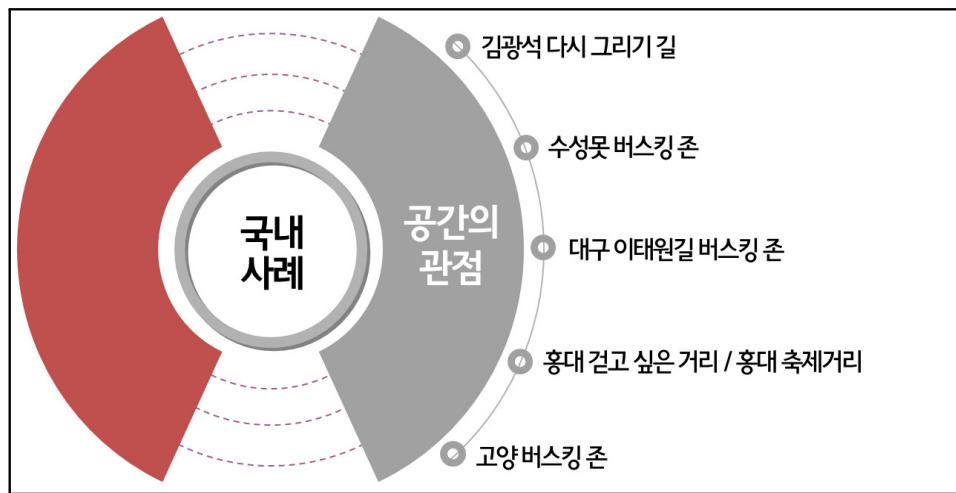
1절 보헤미안 거리 속성 도출

- 사례지 선정을 위한 일상 예술공간의 속성 도출
 - 예술 거리 사례 조사하기에 앞서 먼저 보헤미안 거리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속성에 맞게 결론을 도출하고자 함
 - 예술성: 거리 예술가, 생활 예술인 예술적 역량 제고를 위한 공간
 - 장소성: 세종시 문화예술 환경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 일상성: 일상 속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속성



[그림 3-1] 일상 예술공간의 속성

- 일상 공간 예술 거리 사례로 대구, 홍대, 고양 등의 5곳의 사례를 도출
 - 일상 예술공간의 속성으로 도출한 일상성, 장소성, 예술성을 담보하고, 버스킹 공연장 활동이 활성화 된 곳으로 선정하였음
 - 이 연구의 사례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대구), 이태원 길(대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서울)을 조사하였음
 - 버스킹 공연 추진사업인 고양버스커즈(고양), 운영 플랫폼인 부산 버스킹 플랫폼(부산)을 선정하여 검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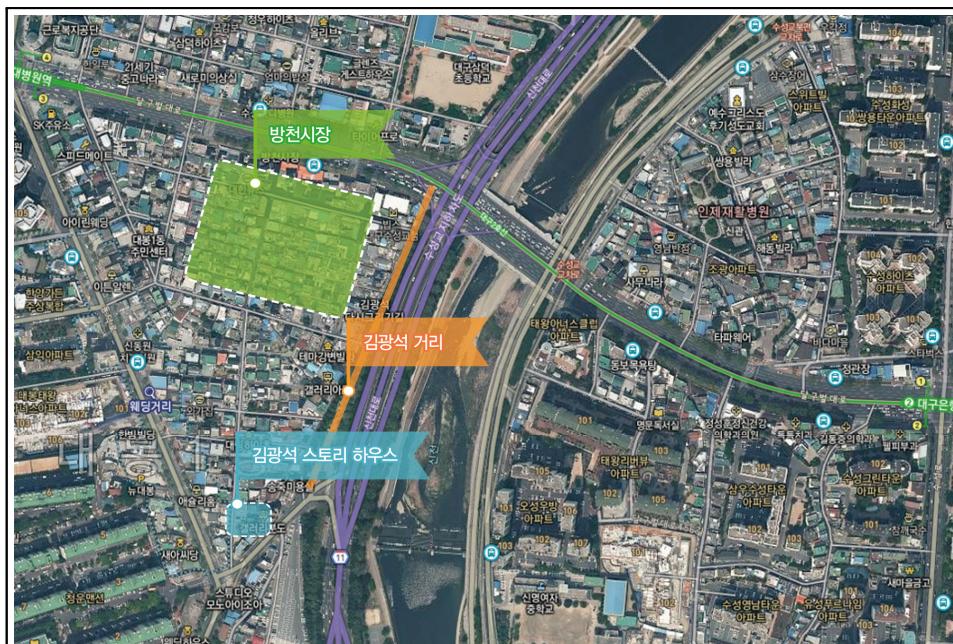


2절 국내 사례

1.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대구)

□ 일반개요

- 개요 : 故 김광석이 살았던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 골목에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주제로 하는 예술 거리
- 위치 : 대구 중구 대봉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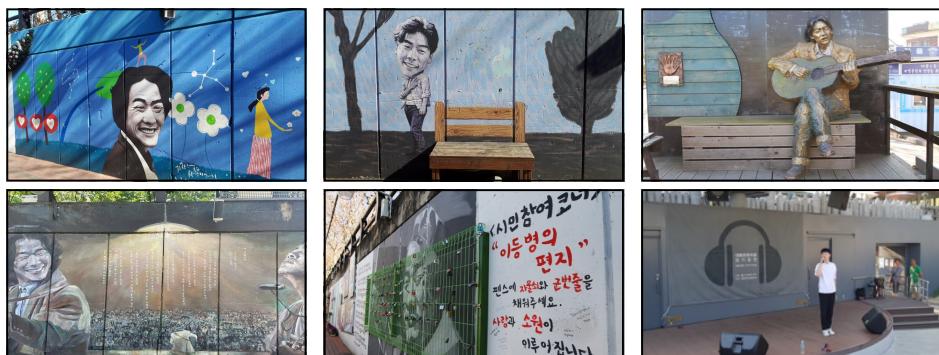


[그림 3-3] 김광석 거리 위치

□ 세부 내용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에 있으며 가수 김광석을 주요 소재로 구현한 예술 거리로서, 수성교에서 송죽미용실까지의 구간에 조성되었음

-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란 이름은 가수 김광석의 앨범 ‘다시 부르기’에서 지어졌음
 - ‘그리기’는 김광석을 ‘그리워하면서[想念, miss]’라는 의미와 (그림을) ‘그리다[畫, darw]’는 의미를 포함하여 중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음
- 2010년 ‘방천시장 문전성시(門前成市) 프로젝트’에 의하여 조성된 곳으로 방천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침체 된 전통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임
 - 2010년 90m 구간을 조성하여 우선 공개하였고, 이후 수성교~송죽미 용실 350m 구간으로 확장되면서 2014년에 전면 재단장함
-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약 3M 높이의 옹벽을 배경으로 김광석과 그의 노래를 주제로 하는 벽화 24점과, 동상 2점, 김광석 길 관광안내소, 야외 콘서트홀, 카페, 주전부리 가게, 오락실, 소품샵, 옛날 교복 대여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4]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거리

- 방천시장은 신천 제방을 따라 개설된 시장으로 1945년 해방 후 일본·만주 등지에서 돌아온 이주민들이 상권을 형성하였음
 - 1960년대에는 싸전(쌀)과 떡전으로 유명세를 떨쳤으며, 당시 1,000개 가 넘는 점포 수를 자랑함

- 하지만 산업화 이후 도심에 생겨난 대형마트, 백화점으로 인해 점차 자리가 잃어갔으며, 이로 인해 시장은 매우 쇠퇴하게 됨
- 세부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음
 - ‘별의별 별시장 프로젝트(2009.2월~6월)’
 - ‘문전성시 프로젝트(2009.10월~2011.12월)’
 - ‘쌈지공원 조성 및 김광석 조형물(입상) 설치(2013)’
 - ‘김광석 길 관광 활성화 사업(2014)’
 - ‘김광석 길 스토리 하우스 건립(2017)’ 등이 있음
-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성과를 도출함
 - 대한민국 베스트 그곳 선정
 - 열린 관광지 선정
 - 한국 관광 100선 3회 선정
 -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
 - 한국 관광의 별 우수상
 - 야간관광 100선 선정
-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모든 공간이 버스킹 공연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대 이점이 있으며, 이 같은 이유로 지금도 다양한 곳에서 많은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고 있음



[그림 3-5] 김광석 거리 내 공연 모습

출처: 귛전명상&희망을 파는 사람들

2. 이태원 길(대구)

□ 일반개요

- 개요 : 대구 북구에서 태어난 천재 소설가, 이태원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거리
- ○ 위치 : 대구 북구 일대



[그림 3-6] 이태원길 위치

□ 세부 내용

- 이태원 길은 대구 칠곡 지역 출신 천재 소설가 ‘이태원’ 작가의 이름을 담은 문화예술거리임
 - 이 거리는 작가의 고향이자 대표작인 「객사」의 무대이기도 한 칠곡에서 작가를 회상하고,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며, 문학의 발자취를 기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성됨
- 이태원 길은 2020년 2월에 완공됐으며, 코로나로 인해 6월에 정식 오픈함. 대구 북구 동천동 3호선 팔거역에서 동천 육교까지 이어지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720m 길이로 조성됨
- 소설가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와 지역민, 지역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음

- 이태원 길 내에는 팔거리광장(구름광장), 이태원 광장이 있으며, 이태원 광장에는 이태원 문학관과 영상관이 존재함
 - 그 외에 모든 광장마다 조형물이나 그림, 작품들이 많이 있어 볼거리가 있음
- 이태원 길에는 버스킹 공연을 위한 공간이 네 곳 조성되어 있음
- 재단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 최소 1주일 전까지 가능함
 - 신청 이후 심의 기간(5일 이내 승인)을 거친 후 사용 가능
- 월요일, 일요일 제외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능하며, 공연이 가능한 시간은 13:00부터 20:40분까지임
- 한 공연당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데, 공연시간 40분, 정리 시간 20분으로 구성됨
- 이용장소는 문화예술거리 이태원 길 버스킹존 1부터 4지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분야는 음악·무용·춤·마술·연극·전시 등 문화예술 전 분야를 모집하고 있음



[그림 3-7] 대구 이태원 길 지도 및 버스킹 안내

출처: 행복북구문화재단

3. 수성못(대구)

□ 일반개요

- 개요 : 대구 수성못 주변 둘레길에 조성되어 있는 버스킹 공연장
- 위치 : 대구 수성구 일대



[그림 3-8] 대구 수성못 위치

□ 세부 내용

- 대구의 대표 호수공원이자 수변공원인 수성못은 1927년 4월 24일 준공된 저수지로, 대구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서 오랫동안 기능하였음
- 수성못에는 영상 음악 분수와 수상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오리배 유람선을 통해 수상 여가를 즐길 수 있음
 - 이외에도 산책로, 식당가, 놀이 시설이 형성되어 있음
 - 더욱이 2019년부터 수성못 일대에서는 주민 주도형 축제인 ‘수성빛 예술제’가 개최되어 주민 작품과 예술가 작품이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고 있음
- 수성못 내에 버스킹존은 총 네 곳으로 무대는 크게 포켓 무대 1, 2, 3과 남쪽 무대로 구성되어 있음

[표 3-1] 버스킹존 운영 방법 및 예약 참고사항

구분	요일	시간	비고
포켓 무대	화요일~ 일요일	09:00~21:30 (하절기 6~8월 09:00~22:00)	길거리공연 신청 단체 또는 개인으로 소규모 공연단 위주
남편 무대	화요일~ 금요일	09:00~21:30 (하절기 6~8월 09:00 ~22:00)	색소폰 동호회 등 중규모 공연단 위주

출처: 행복 수성 문화관광 문화행사

버스킹존 무대 배치도



무대 신청 및 신청 확인

신청/신청 확인

2023.0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예약 가능 날짜 예약 불가 날짜

- * 현재 신청 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 버스킹 신청은 매달 10월~20월에 가능합니다.
-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무대운영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 신청현황에 따라 신청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8월 03일

이용시간	무대명	신청건수
13:00~16:00	포켓1	0건
	포켓2	0건
	포켓3	0건
	남편무대	0건
16:00~19:00	포켓1	0건
	포켓2	0건
	포켓3	0건
	남편무대	0건
19:00~22:00	포켓1	0건
	포켓2	0건
	포켓3	0건
	남편무대	0건

나의예약현황(본인인증)

[그림 3-9] 대구 수성못 버스킹존 무대 배치도 및 신청서

출처: 행복북구문화재단

- 버스킹 무대는 주로 공연 전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12월~익년도 2월)에는 무대를 운영하지 않음
 - 모집 장르는 퍼포먼스(마임, 마술, 서비스, 무예 퍼포먼스 등), 음악(보컬, 밴드, 랩, 디제잉, 기악, 국악 등), 댄스(비보잉, 힙합, 벨리 댄스, 전통무용 등), 기타 등 다양한 분야를 모집하고 있음
- 무대 신청하는 절차는 먼저 본인인증을 하고 공연신청을 진행, 이후 무대 배정 확정(전월 말)을 받고 나서 공연을 진행함
- 공연팀별 월 4회 이내로 신청 가능함
 - 색소폰 관련 팀은 남편 무대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공연 장르, 공연실적, 공연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 확인 후 배정)
 - 공연신청자 외 공연 불가함(무대 전대 행위 금지)
 - 포켓무대3은 전기시설이 없음
 - 소음 등 민원 야기 시 공연이 제한될 수 있음
 - 우수버스커 선발팀에 우선 배정됨(선발팀 특전)
 - 공연팀 배정은 선착순이 아니며 공연팀 소개 및 공연내용, 사용 악기 및 장비, 전월 공연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모두 검토 후에 배정됨
 - 공연팀 배정 시 공연팀 및 공연내용 다양성을 고려함

포켓 무대 1 및 7월 일정



▣ 이달의 일정

2023.07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공연일

포켓 무대 2 및 7월 일정



▣ 이달의 일정

2023.07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공연일

포켓 무대 3 및 7월 일정



▣ 이달의 일정

2023.07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공연일

남편 무대 및 7월 일정



▣ 이달의 일정

2023.07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공연일
(7월~8월 매주 금요일 남편무대 신청평가 (수정을 아간상설공연 진행))

[그림 3-10] 대구 수성못 버스킹존

출처: 행복복구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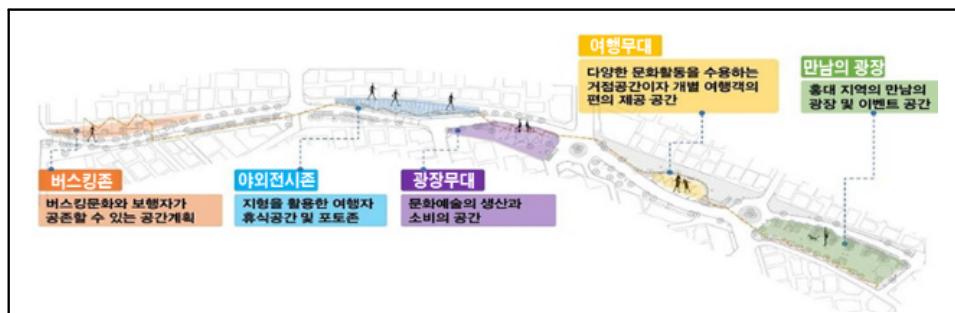
4. 홍대 걷고 싶은 거리(서울)

□ 일반개요

- 개요 : 홍대입구역에서 홍대까지의 거리로서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을 통해 예술공간으로 거듭난 사례
- 위치 :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145-3

□ 세부내용

- ‘홍대 걷고싶은거리’는 2016년 홍대 주변 약 500m 구간에 대해 서울 시와 함께 문화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됨
 - 4개의 버스킹존과 야외전시존, 광장무대, 여행 무대, 만남의 광장이 있으며, 각종 공연단체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무료임



[그림 3-11] 서울 홍대 걷고싶은거리 레드로드 R1~2 장소 사용 준수사항

출처: 마포문화관광



[그림 3-12] 서울 홍대 걷고싶은거리 야외공연장 안내

출처: 마포문화관광

[표 3-2] 서울 홍대 걷고싶은거리 신청 세부사항

구분	내용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킹존1 :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07 앞 - 버스킹존2 : 마포구 어울마당로 109 앞 (※임시 사용중단) - 버스킹존3 : 마포구 어울마당로 111 앞 (※앰프 사용 불가능) - 버스킹존4 : 마포구 어울마당로 111-1 앞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0~22:00(요일무관), 2시간 단위
사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50분 공연(정리 시간 10분) - 걷고싶은거리 버스커 사전 등록 완료된 공연자만 신청 가능 (등록번호 필수 입력, 팀(단체)에는 지정된 대표자가 신청)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공연장 사용조건 문서 참고
주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공연 ※ 버스킹존 1, 4 : 대중음악, 댄스 등 버스킹이 가능한 장르 ※ 버스킹존 3 : 마술, 마임, 넌버벌 퍼포먼스, 클래식 등 앰프를 사용 하지 않는 공연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월~목): 월 4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 후 승인 처리, 버스커 등록 정보 기재 ※ 주말(금~일), 공휴일: 월 2회, 추첨제로 운영(홈페이지 신청 불가) - 주말 예약 신청 방법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신청취소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
문의처	마포구청 관광과 ☎3153-8668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킹존’은 신청인의 자율 버스킹 공간으로, 버스킹 공연 외 승인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사 운영 시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약 시 향후 이용 불가합니다

출처: 마포문화관광

버스킹1 및 7월 일정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버스킹3 및 7월 일정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버스킹 및 7월 일정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그림 3-13] 서울 홍대 걷고싶은거리 버스킹존 및 예약상황

출처: 마포문화관광

5. 고양 버스커즈(고양)

□ 일반개요

- 자율적인 거리공연을 통해 시민 문화를 꽂피우고, 시민 스스로 거리예술을 펼치는 사업을 고양버스커즈라 하며, 현재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 세부 내용

- 고양시는 다양한 거리예술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임
 - 도심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거리 예술가들이 버스킹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고양시 거리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술단체들의 자발적인 공연 비중이 커 예술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음
- 고양시에서는 공식 거리예술 단체인 ‘고양버스커즈(Goyang-Buskers)’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거리예술 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과 지원을 하고 있음
 - 고양버스커즈는 고양문화재단이 연중 정기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며, 현재 지역 예술인의 큰 비중을 차지함
 - 어쿠스틱 밴드를 비롯해 포크·록·재즈·클래식·비보잉·무용·마술·페포먼스·국악·생활 악기 등의 다양한 장르를 나타냄
- 고양 버스커즈는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현재 200개가 넘는 단체가 속해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이 고양시 소속 예술가로서 100여 개의 단체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
 -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심 거리공연으로 별도의 사례비가 없는 자율적인 공연이며, 현재 고양시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함
 - 현재 버스킹 장소로는 고양시 및 고양문화재단이 관리하는 20여 개의 버스킹존과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하고 있음

고양 버스킹존		
		
고양호수공원(2개소)	일산문화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레이킨스몰	덕양구청 가로수길	화정로데오거리(2개소)
		
주엽커뮤니티센터	웨스턴돔(3개소)	라페스타(2개소)
		
어울림누리 꽃메야외극장	아람누리 야외광장	화정중앙공원

[그림 3-14] 고양시·고양문화재단 운영 버스킹존

출처: 고양버스킹즈

6. 부산 버스킹 플랫폼

□ 일반개요

- 개요 : 부산 내 버스킹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플랫폼 형태의 누리집(<http://busking.busan.go.kr/index.asp>)

□ 세부내용

- 부산 버스킹 플랫폼은 부산 지역 내 버스킹 정보를 소통·교류하는 공간으로서 공연정보 및 UCC, 버스커, 소통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음
 - 사용자 메뉴얼(FAQ)에도 내용들이 상세히 있으며 <서비스 이용약관>,<포인트 이용약관> 등에 대해 타 사이트에 비해 자세히 나와 있어 버스킹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보다 편리함



[그림 3-15] 부산광역시 버스킹 플랫폼 홈페이지

출처: 부산 버스킹 플랫폼

- 공연장 같은 경우 현재 모두 시범운영 중이며 크게 무앰프존과 밸라드 존으로 나뉨
 - ‘무앰프존’은 오륙도스카이워크, 학장천임
 - ‘밸라드존’은 감천문화마을, 다대포해수욕장, 명품가로공원(사상역앞), 온정마을 등을 이름

공연 장소	공연 일정	공연장 정보
오륙도 스카이워크	 <p>6/3 14:00 [무연프로]오륙도스카이워크[시범운영중] 표경행 5/1 12:00 [무연프로]오륙도스카이워크[시범운영중] 대사관목회 4/27 14:00 [무연프로]오륙도스카이워크[시범운영중] 대호 4/16 14:00 [무연프로]오륙도스카이워크[시범운영중] 나동강 18:00 [무연프로]오륙도스카이워크[시범운영중] 나동강 3/31 13:00 [무연프로]오륙도스카이워크[시범운영중] 환경경비 10/8 18:00 오륙도스카이워크 어안생</p>	<p>공연장명 [무연프로]오륙도스카이워크[시범운영중] (B)</p> <p>면적 -</p> <p>수용인원 50명이상</p> <p>보유장비 엔드시트 규격(4x4) / 시변운영중(12~19시까지) / 무대의자 /</p> <p>부대시설 화장실(인근10m내)</p> <p>주소 오륙도로 137 오륙도홍보관 일원</p> <p>연락처 홈페이지/소통공간/건의사항 입력</p>
학장천	 <p>8/19 17:00 [무연프로]학장천-시범운영중 벽간여개인2020 6/25 14:00 [무연프로]학장천-시범운영중 새마을 5/25 13:00 [무연프로]학장천-시범운영중 광복 14:00 [무연프로]학장천-시범운영중 광복 15:00 [무연프로]학장천-시범운영중 광복 16:00 [무연프로]학장천-시범운영중 광복 5/9 17:00 [무연프로]학장천-시범운영중 부산기타풀적 4/15 12:00 학장천(내공연장)-시범운영중 학장동 13:00 학장천(내공연장)-시범운영중 학장동</p>	<p>공연장명 [무연프로]학장천-시범운영중 (B)</p> <p>면적 -</p> <p>수용인원 100명이상</p> <p>보유장비 엔드시트 규격(4x4) / 무대의자, 벽간여개인 / 시변운영중(12~19시까지)</p> <p>부대시설 화장실(인근50m내)</p> <p>주소 학장교 아래</p> <p>연락처 홈페이지/소통공간/건의사항 입력</p>
감천 문화마을	 <p>4/16 13:00 [발라드존]감천문화마을-시범운영중 순천버스커 14:00 [발라드존]감천문화마을-시범운영중 순천버스커 3/26 15:00 [발라드존]감천문화마을-시범운영중 순천기타풀적 2/25 12:00 [발라드존]감천문화마을-시범운영중 카류 15:00 [무연프로]감천문화마을-시범운영중 심성보 1/6 10:00 [무연프로]감천문화마을-시범운영중 진심매력 12/25 14:00 [무연프로]감천문화마을-시범운영중 giwodud</p>	<p>공연장명 [발라드존]감천문화마을-시변운영중 (A)</p> <p>면적 -</p> <p>수용인원 30명이상</p> <p>보유장비 초월한 국민 앱과 시장 가능(청속) / 시변운영중(12:00~17:00) / 무대의자</p> <p>부대시설 화장실(인근100m내)</p> <p>주소 감천동-10 감천문화마을아트홀(소행선 8612) 일원</p> <p>연락처 홈페이지/소통공간/건의사항 입력</p>
다대포 해수욕장	 <p>9/24 12:00 대대포해수욕장-시범운영중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 13:00 대대포해수욕장-시범운영중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 14:00 대대포해수욕장-시범운영중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 15:00 대대포해수욕장-시범운영중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 16:00 대대포해수욕장-시범운영중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 17:00 대대포해수욕장-시내999광장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 9/23 12:00 대대포해수욕장-시범운영중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 13:00 대대포해수욕장-시범운영중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 14:00 대대포해수욕장-시범운영중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 15:00 대대포해수욕장-시범운영중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 16:00 대대포해수욕장-시범운영중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p>	<p>공연장명 대대포해수욕장-시변운영중 (S)</p> <p>면적 -</p> <p>수용인원 200명이상</p> <p>보유장비 무대의자/리디아이드/열사기/조명 / 시변운영중(13:00~19:00)</p> <p>부대시설 화장실(인근50m내) / 차량역</p> <p>주소 대대포1674 해변한내 보도교 일원</p> <p>연락처 홈페이지/소통공간/건의사항 입력</p>
명품 가로공원	 <p>9/27 14:00 명품가로공원시작방-시변운영중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 15:00 명품가로공원시작방-시변운영중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 16:00 명품가로공원시작방-시변운영중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 17:00 명품가로공원시작방-시변운영중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 9/24 16:00 명품가로공원시작방-시변운영중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 9/23 14:00 명품가로공원시작방-시변운영중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 15:00 명품가로공원시작방-시변운영중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 16:00 명품가로공원시작방-시변운영중 시내구 문화관광홍보과 9/17 14:00 명품가로공원시작방-시변운영중 경제지</p>	<p>공연장명 명품가로공원(사상역앞)-시변운영중 (S)</p> <p>면적 -</p> <p>수용인원 100명이상</p> <p>보유장비 시변운영중(14~20시까지) / 무대의자, 조명</p> <p>부대시설 화장실(인근50m내-버스터미널/사상역)</p> <p>주소 사상구 래일동 531-2 사상역 3번출구 일원</p> <p>연락처 홈페이지/소통공간/건의사항 입력</p>
온정마을	 <p>9/16 17:00 온정마을-시변운영중 아래연돌くん 5/25 17:00 온정마을-시변운영중 혜자 5/14 14:00 온정마을-시변운영중 민현라이브 15:00 온정마을-시변운영중 민현라이브 5/11 12:00 온정마을-시변운영중 가을아가을야 5/1 12:00 온정마을-시변운영중 애호 14:00 온정마을-시변운영중 민현라이브 15:00 온정마을-시변운영중 민현라이브</p>	<p>공연장명 온정마을-시변운영중 (B)</p> <p>면적 77.43 m²</p> <p>수용인원 100명이상</p> <p>보유장비 무대의자/조명 / 시변운영중(09:00~18:00)</p> <p>부대시설 화장실(인근10m내) / 무대의자/자양역</p> <p>주소 소공원(길을은 농백리 266-3) 일원</p> <p>연락처 홈페이지/소통공간/건의사항 입력</p>

[그림 3-16] 부산광역시 버스킹존

출처: 부산 버스킹 플랫폼

- 버스킹존은 원하는 날짜 지정 후 예약하는 과정으로 타 지역과 유사하지만, ‘공연포인트’라는 인센티브제를 활용하고 있음
 - 공연 포인트는 시민 누구나 버스커가 되어 자유롭게 공연 예약 및 진행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 운영’의 핵심 요소임
 - 포인트를 얻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먼저 회원 가입 시에 받는 1,000포인트가 있으며, 2번째는 인센티브 또는 활동 포인트, 기타 각종 이벤트 참여 등에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고 있음
 - 마지막 3번째는 공연을 마치고 난 후 유튜브에 공연영상을 업로드하고(3분 이상 권장) 링크 주소, 공연 및 공연 후 정리 정돈 인증사진을 홈페이지 ‘UCC 등록’에 등록을 해놓으면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는 구조임
 - 이런 방식으로 얻은 포인트들은 버스킹 공연장을 예약할 때 차감되는데, 이때 차감되는 점수도 공연장의 위치나 환경에 따라 어느 정도의 편차가 존재함
 - 접근성·관중 수 등에 따라 인기 있거나 반대로 인기가 없는 공연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기 있는 공연장은 예약은 비싸고 비인기 공연장 예약은 저렴하게 차감되는 등 환경에 무관하게 부산 전역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장마다 예약 포인트를 다르게 받고 있음
 - 영상 등록을 통해 적립 받을 수 있는 포인트의 경우 인기 많은 공연장의 경우 적게 받고, 비인기 공연장의 경우 많이 지급하는 등 한곳으로 몰리지 않게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음

[표 3-3] 2023.2. 기준 현재 공연장별 포인트 설정 현황(변경될 수 있음)

공연장	예약차감 포인트	영상등록포인트 (2분미만)	영상등록포인트 (2분미만)
오륙도스카이워크	300	400	200
다대표해수욕장	400	300	200
감천문화마을	300	400	200
학장천	200	500	300
명품가로공원	400	300	200
온정마을	200	500	300

출처: 부산 버스킹 플랫폼

3절 사례 시사점

□ 명칭에 대한 공감 필요

- 해당 지역의 특성, 예술적 속성을 반영하거나 누구나 이해하면서도 공감할 만한 명칭 선정 필요

□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 지역이 함의하는 이야기의 현대적·창조적 활용방안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낼 필요가 있음
- 주변 환경과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적합한 운영방안 수립 필요

- 버스킹 공연단체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누리집을 활용한 운영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 조례제정을 통한 운영방안 법제화를 도모하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세종시 문화예술거리 콘텐츠 현황과 실태

1절 가치누리 문화거리(구, 상생형 문화거리)

2절 세종컬처로드

3절 금강보행교 거점 공연(2022년)

4장

4장 세종시 문화예술거리 콘텐츠 현황과 실태

1절 가치누리 문화거리(구, 상생형 문화거리)

1. 사업 개요 및 목적

- 세종시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예술사업 중 하나인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은 지역 상권과 연계한 문화예술공간 구축, 거리예술 활성화를 통해 지역과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2020년~2022년도까지는 <상생형 문화거리>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2023년에 들어서는 <가치누리 문화거리>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음
- 아래 표는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을 년도 별로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

[표 4-1]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연도별 내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대상지 (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솔동 (한솔동 노을3로, 20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솔동 (노을3로 일부화장, 200m)• 중촌동 (종종촌촌 만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운동 (반짝반짝 고운별)• 보람동 (예술산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운동 (반짝반짝 고운별)• 다정동 (다정아 백제로 와)• 반곡동 (환경아 문화랑 놀자, 반곡갤러리 거리에서)• 아름동 (미래로 꿈틀)• 중촌동 (세종을 빛내다)										
사업기간	10~12월	4~6월 8~11월	6~9월 9~11월	<table border="1"><tr><td>7~9월</td><td>고운동</td></tr><tr><td></td><td>종촌동</td></tr><tr><td>6~11월</td><td>다정동</td></tr><tr><td></td><td>아름동</td></tr><tr><td>7~11월</td><td>반곡동</td></tr></table>	7~9월	고운동		종촌동	6~11월	다정동		아름동	7~11월	반곡동
7~9월	고운동													
	종촌동													
6~11월	다정동													
	아름동													
7~11월	반곡동													

2. 시기별 추진 내용

1)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2020년)

- 2020년에는 상생형 문화거리 시범사업으로 한솔동 ‘노을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음

[표 4-2] 상생형 문화거리(2020년) 사업 내용

구분	주요프로그램	결과
문화기반 구축	문화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시행 중 진행
	주민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 협의를 통합하여 시행
문화공간 조성	거리 큐레이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솔동노을길’의 이미지 및 스토리 반영
	창작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실 미술관(한솔동930 1층(104-105호)) 기획전시 (작가 4인 개인전, 공간특성 반영)<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도영(회화) : 한옥 그리고 한글- 최혜원(설치) : Plan B.- 공지영(설치) : 변화된 일상- 박준범(미디어) : 학교를 위한 땅
	세:상 레지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가 4인의 작업 공간
시민참여 프로그램	맞손살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매장 참여
	공공예술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문미디어 아트, 경관조명 설치
문화거리 명소화	거리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예술로’ 협력 시행
	장소마케팅(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sns매체 개설 홍보

- 이 시기의 사업은 문화기반구축·문화공간조성·시민참여 프로그램·문화거리 명소화 등 총 네 가지의 사업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문화 기반 구축’은 운영 및 향유 주체인 ‘시민’과 관련한 사업으로, 문화거버넌스·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을 포함함
 - ‘문화공간조성’은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미술관 등 문화공간을 조성 및 기존 거리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거리 큐레이팅·창작공간 조성·세상 레지던시 등을 포함함

- ‘시민참여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예술 콘텐츠를 향유하는 사업으로, 맞손살롱·공공예술 프로젝트 등을 포함함
- ‘문화거리 명소화’는 축제와 홍보 등을 이르며, 거리공연·장소마케팅 등을 포함함



[그림 4-1] 2020년 상생형 문화거리 <한솔동 노을길>

2)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2021년)

(1) 한솔동

- 2021년에는 상생형 문화거리 본격 사업으로 기존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한솔동 ‘노을길’을 확장하여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였음

[표 4-3] 상생형 문화거리(2021년) 사업 내용

구분	프로그램 내용	
문화 거버넌스 구축	참여주체	• 한솔동, 주민자치회, 상인회, 예술인 등
	운영내용	• 추진위 회의 10회, 역량강화 교육 2회
문화공간 조성	공실미술관	• 작가 29인 참여, 작가와의 대화 3회 실시(128명 참여), 총 366명 관람 (4월) 즐거운 고립, 574명 (5월) 동화는 살아있다, 1607명 (6월) 편평, 374명
	예술인 창작공간	• 지역예술가 3인의 공유 작업실 등 복합 목적 창작공간 조성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공예술 프로젝트	• 지역주민 참여형 작품, 미디어아트, 조형물 설치
	맞손살롱	• 상인회주도 취미 공유 프로그램 5회 운영, 25명 참여
문화거리 명소화	거리공연	• 버스킹 공연 5회 개최, 거리 예술가 15팀 참여, 300여 명 관람

- 이 시기의 사업은 문화거버넌스구축·문화공간조성·시민참여 프로그램·문화거리 명소화 등 총 네 가지의 사업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문화거버넌스구축’은 운영 및 향유 주체인 ‘시민’과 관련한 사업으로, 참여주체·운영내용 등을 포함함
 - ‘문화공간조성’은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미술관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실 미술관·예술인 창작공간으로 구성됨
 -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프로그램으로, 공공예술프로젝트·맞손살롱 등으로 구성됨

- ‘문화거리 명소화’는 축제 등의 지속적인 콘텐츠를 통해 시민 인식을 확산하는 사업으로서 ‘거리공연’으로 구성됨



[그림 4-2] 상생형 문화거리(2021년) 조성안 및 포스터

도도새	공실미술관 내 작가 개인적
토요예술로 공연	그림 및 각종 설치미술 작품 전시

[그림 4-3] 상생형 문화거리(2021년) <한솔동>

(2) 종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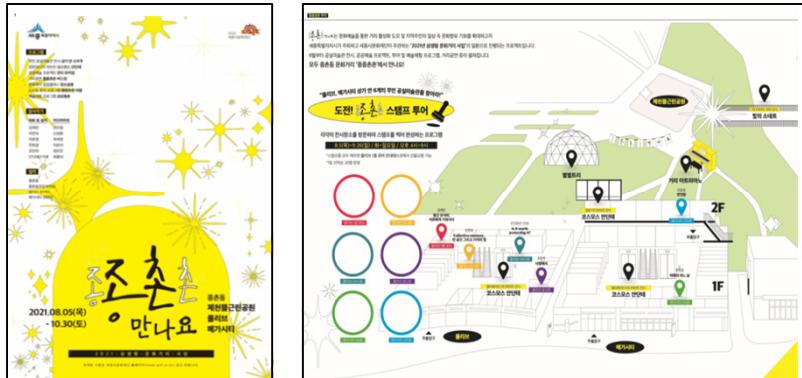
- 2021년에는 2차 문화거리 사업으로, <종종촌촌, 만나요>라는 주제 아래에 종촌동의 상가를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음

[표 4-4] 상생형 문화거리(2021년) 사업 내용

구분	프로그램 내용	
문화 기반 구축	참여주체	• 종촌동주민자치회, 상인회, 예술인 등
	운영내용	• 추진위원회 8회, 상인 간담회 2회
문화공간 조성	공실미술관	• 공실미술관 7개소, 전시 2회 (8월~9월) 참여작가 6팀, 1,200명 관람 (10월) 참여작가 5명, 팀 프로젝트 연계 1건, 약 600명 관람
	미디어아트	• <코스모스 안단테> : 엘리베이터, 창문을 활용한 전시 - 참여작가 6명, 작품 7점
	공공예술 프로젝트	• <잔디 뮤지엄> - 작품제작 워크숍 2회 40명 참여, 작품 5건, 상인협업 1건
시민참여 프로그램	스탬프· 도슨트 투어	• 상권 연계를 통한 스팸프 투어 : 600명 참여 • 도슨트 10명 선정, 14회 운영, 115명 참여
	예술체험 프로그램	• <상상종촌> : 예술강사 4명, 프로그램 3개, 11회 운영 - 136명 참여
	문화취미 일일클래스	• <맞손살롱> : 상인 6명 참여, 프로그램 17회, 시민 63명
문화거리 명소화	거리공연	• 거리공연 4회, 7팀, 시민 1,000여명 관람

- 이 시기의 사업은 문화기반구축·문화공간조성·시민참여 프로그램·문화거리 명소화 등 총 네 가지의 사업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문화기반구축’은 운영 및 향유 주체인 ‘시민’과 관련한 사업으로, 참여주체·운영내용 등을 포함함
 - ‘문화공간 조성’은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미술관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실미술관·미디어아트·공공예술 프로젝트로 구성

-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스탬프투어·도슨트투어·예술체험 프로그램·문화취미 일일클래스 등으로 구성됨
- ‘문화거리 명소화’는 축제 등의 지속적인 콘텐츠를 통해 시민 인식을 확산하는 사업으로서 ‘거리공연’으로 구성됨



[그림 4-4] 상생형 문화거리(2021년) 조성안 및 포스터

문화거리 투어	시민 도슨트 현장교육
맞손살롱 워크숍	예술체험 프로그램

[그림 4-5] 상생형 문화거리(2021년) <종촌동>

3)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2022년)

(1) 고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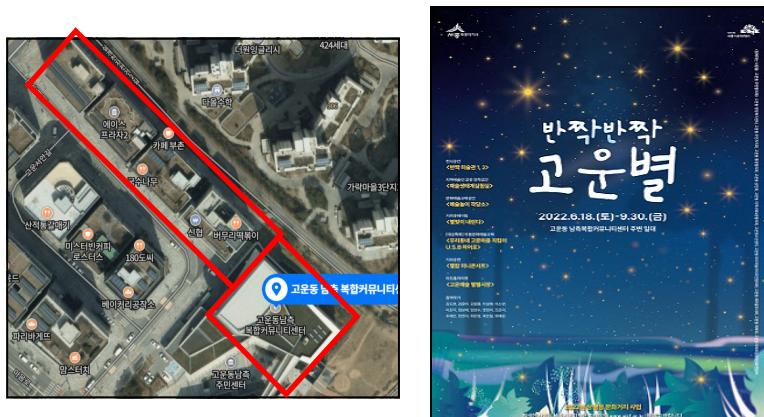
- 2022년에는 고운동과 보람동에서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고운동은 ‘반짝반짝 고운별’이라는 사업명 아래에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음

[표 4-5] 상생형 문화거리(2022년) 사업 내용

구분	프로그램 내용	
문화 거버넌스 구축	상생형 문화거리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위원회 회의 4회
	고운동 주민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협의체 회의 6회, 누적 54명
유휴공간 재탄생	공유 창작 공간 <예술생태계실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실상가 1곳 창작공간조성 • 지역 예술인 3명, 시민 8명 참여 • 창작실험 세미나 6회 운영
	문화예술교육 공간 <예술놀이 작당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실상가 1곳 교육공간 • 소상공인 5팀, 교육 10회, 참여자 91명
	전시공간 <반짝 미술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실상가 2곳 복합공간 조성·전시 4회 진행 (개막식 1회 별도, 87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정원) 예술가 8명, 1,174명 관람 - (예술상점) 예술가 11명, 414명 관람 - (예술생태계실험실) 시민작품 147점, 560명 관람
거리 명소화	아동문화예술교육 <USB 히어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외 2곳 활용, 예술강사 4명 참여프로그램 4개 16회 운영, 시민 180명 참여
	아트 플리마켓 <고운예술 별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66팀(128명) 참여 • 체험 프로그램 3회 운영, 17명 참여 • 2,167명 관람
	거리공연 <별밤미니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공연 4회, 예술가 9팀(21명) 참여 • 580명 관람

- 고운동에서의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은 문화거버넌스 구축·유휴공간 재탄생·거리 명소화로 유형화할 수 있음
 - ‘문화거버넌스 구축’은 운영 및 향유 주체인 ‘시민’과 관련한 사업으로, 상생형 문화거리 추진위원회·고운동 주민협의체로 구성됨

- ‘유휴공간 재탄생’은 공실 상가를 활용한 미술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유 창작공간(예술생태계실험실)·문화예술교육 공간(예술놀이 작당소)·전시공간(반짝 미술관 1, 2)으로 구성됨
- ‘거리 명소화’는 기존의 이동을 위한 일상 공간을 콘텐츠를 입힌 사업으로, 아동문화예술교육(USB 히어로)·아트 플리마켓(고운 예술 별별시장)·거리공연(별밤미니콘서트)으로 구성됨



[그림 4-6] 상생형 문화거리(2021년) 조성안 및 포스터

장식물	아트 플리마켓
작은 미술관 및 예술놀이작당소	업사이클 아트벤치

[그림 4-7] 상생형 문화거리 (2021년) <고운동 반짝반짝 고운별>

(2) 보람동

- 보람동의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은 ‘예술산책’이라는 사업명 아래에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음

[표 4-6] 상생형 문화거리(2022년) 사업 내용

구분	프로그램 내용	
문화 기반 구축	보람동 협의체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협의체 회의 5회 /누적 32명 참여
	거주민 역량 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8회, 누적 114명 (참여예술가 5명)
산책길에 만난 ‘예술물결’	거리 큐레이팅 〈예술물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과 공원 등 장소 특수성을 반영한 거리 경관 조성
	예술산책 안내지도 〈다 같이 걷자, 예술 한바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별 추천코스 등 예술산책 안내지도 제작 설치·배포
산책길에 만난 ‘예술놀이터’	기획전시공간 〈이응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3명 참여, 총 720명 관람 • 김성원, 김나연, 장승아 개인전 운영
	참여미술 체험공간 〈이응창작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작가 1명, 228명 참여
	거리공연 〈두둠칫버스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킹 공연 6회 개최, 거리 예술가 18팀(29명) 참여, 610명 관람
산책길에 만난 ‘예술쉼터’	복합문화공간 〈이응예술라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실내 공연 8회 진행, 예술가 8팀(26명) 참여, 192명 관람
	미디어전시 〈예술산XButterc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 창문 활용한 외부 미디어 전시 진행, 작가 1명 참여, 1,950여 명 관람 (9월) Wonderland (10월) Hidden Place (11월) Dancing Rose
	설치 조형물 〈쉬엄쉬엄 아트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응다리를 형상화한 아트벤치 설치, 예술쉼터 공간 연출

- 보람동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의 세부 내용으로는 문화 기반구축·산책길에 만난 ‘예술물결’, 산책길에 만난 ‘예술놀이터’, 산책길에 만난 ‘예술쉼터’로 구성되었음
 - ‘문화 기반구축’은 운영 및 향유 주체인 ‘시민’과 관련한 사업으로, 보람동 협의체 회의·거주민 역량 강화 교육으로 구성됨

- '산책길에 만난 '예술물결'은 거리 경관을 조성하고, 안내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거리 큐레이팅(예술물결로)', '예술산책 안내지도(다같이 걷자, 예술 한 바퀴)' 사업으로 구성됨
- '산책길에 만난 '예술놀이터'는 지역예술가의 창작 환경을 마련하고, 거리공연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획전시공간(이응 미술관)', '참여미술 체험공간(이응창작놀이터)', '거리공연(두둠칫버스킹)'으로 구성됨
- '산책길에 만난 예술쉼터'는 공연과 미디어 아트 등을 연출하는 사업으로, '복합문화공간(이응예술라운지)', '미디어전시(예술산XButtercup)', '설치 조형물(취업취업 아트벤치)'로 구성됨



[그림 4-8] 상생형 문화거리(2022년) 조성안 및 포스터

구조물	이응창작 라운지
이응창작놀이터	거리큐레이팅 (예술물결/건물외벽, 잔디, 보행로 등)

[그림 4-9] 상생형 문화거리 (2022년) <보람동 예술산책>

2절 세종컬처로드

1. 사업 개요 및 목적

- 세종시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예술사업 중 하나인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공연의 문턱을 낮추어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공연으로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예술사업임
 - 아마추어 거리 예술가 발굴을 통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거리 활력 제고 및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위한 사업임
- 세종컬처로드의 최근 3개년 사업 내용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4-7] 컬처로드 사업연도별 내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20 세종 컬처로드'	'2021 시민과 함께 하는 세종 컬처로드'	'2022 시민과 함께 하는 세종 컬처로드'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거리 공연 30회• 드라이브 인 공연 1회• 예술인 포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 예술가 20팀 선발• 거리공연 30회• (거점형, 찾아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 예술가 20팀 선발• 찾아가는 공연 40회• 거리예술가 콘서트 2회
사업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10곳 (읍·면 3곳, 동 7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11곳 (읍·면 4곳, 동 7곳)
사업 기간	2020년 1월~12월	2021년 1월~12월 ※공연기간: 5월~10월	2022년 1월~12월 ※공연기간: 4월~11월

2. 시기별 추진 내용

1) 세종컬처로드(2020년)

- 2020년의 세부 사업으로 '세종토요예술로', '찾아가는 아트트럭', '세종 문화발전포럼' 등의 사업이 구성되었음
- 사업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 사업 내용

- 길거리공연 30회, 드라이브 인 공연 1회, 예술인 포럼 1회
- 지역 문화예술가와 지역주민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 사업방식: 대행업체 선정(외주 위탁) 운영 및 직접 시행

○ 사업 기간: 2020년 1월~12월

○ 운영 결과

- 동 4곳, 18회 운영, 1,395여 명 관람
- 참여 예술가는 세종 거리 예술가 20팀, 전문예술가 2팀, 예총 민예총 등과 협업

[표 4-8] 컬처로드(2020년) 사업 내용

사업 별칭	운영기간	운영목적	프로그램 구성	운영결과
세종 토요 예술로	2020.8 ~ 11월	예술가에겐 정기적 공연무대 제공, 시민에게는 문턱을 낮춘 공연을 제공하여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주별 테마 설정, 그에 따른 공연팀 배정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0회 공연 유튜브 조회수 10,366회 현장관람 600여명
찾아가는 아트트럭 드라이브 인 콘서트	2020. 2. ~ 10월 (10.31. 공연 시행)	관내 문화소외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 증대를 위해 지역주민이 찾아오는 공연시행, 향후 현장 공연의 새 모델 제시	시민이 좋아하는 트롯공연, 2020 세종거리예술가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공연 1회 시행 580여명 관람
세종문화 발전포럼	2020. 10. 16.(금) 16:00, 조치원문화정원	세종 문화예술의 잠재적 발전가능성과 대안 모색을 위하여 마을문화예술운동의 담론과 정책 대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인원 100여명, 세종시 문화예술 발전 주제 토론 세종예총과 민예총의 연합 TF 구성 등으로 체계적 협력 방안 모색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열린 토론으로 자발적 의견 도출 및 수렴



[그림 4-10] 컬처로드 (2020년) 사업

2) 세종컬처로드(2021년)

- 2021년의 세부 사업으로, 세종 거리 예술가 선발·위촉, 거점형 공연, 찾아가는 공연으로 구성됨
- 사업장소: 관내 10곳(읍·면 3곳, 동 7곳)
- 사업 내용
 - 세종 거리 예술가 20팀 선발
 - 거리공연 30회, 총 2,210명 관람
- 사업 기간: 2021년 1월~12월(※공연 기간: 5월~10월)
- 운영 결과
 - 공연 31회, 포럼 1회 관람객(조회) 수는 11,646명
 - 참여 예술가는 세종 거리 예술가 20팀, 전문예술가 2팀, 예총 민예총 등과 협업

[표 4-9] 컬처로드(2021년) 사업 내용

사업 별칭	운영 기간	운영목적	운영내용	운영결과
세종거리 예술가 선발·위촉	2021.3 ~ 11월	관내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거리예술가 발굴 및 활동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57팀, 선발 거리공연 참여 20팀
거점형 공연	2021.6.5. ~ 10.17	신도심 중심에서 열리는 공연을 통한 거리활성화 및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경험 제공	세종거리예술가 1팀 30분씩 총 2시간 공연 ※상반기: 1시간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4곳, 18회 운영 (나성동3, 도담동3, 아름동6, 보람동6), 1,395여명 관람
찾아가는 공연	2021.5.29. ~ 10.24	지역 내 문화향유격차 해소 및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수요 충족	세종거리예술가 1팀 30분씩 총 2시간 공연 ※상반기: 1시간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6곳, 12회 운영 (연서면2, 장군면2, 고운동2, 한솔동2, 조치원읍2, 소답동2) 총 815여명 관람

세종거리예술가 선발·위촉 / 오디션 및 발대식



거점형 공연



찾아가는 공연



[그림 4-11] 컬처로드(2021년) 사업

3) 컬처로드 사업(2022년)

- 2022년의 세부 사업으로 세종 거리 예술가 선발·위촉, 거점형 공연, 찾아가는 공연으로 구성됨
- 사업장소: 관내 11곳(읍·면 4곳, 동 7곳)
- 사업 내용
 - 세종 거리 예술가 20팀 선발
 - 거리공연 30회
 - 총 2,210명 관람
- 사업 기간: 2022년 1월~12월
 - ※ 공연 기간: 4월 30일 ~ 11월 6일
- 운영 결과
 - 세종 거리 예술가 20팀 선발
 - 공연 개최 42회, 관람 인원 4,050명

[표 4-10] 컬처로드(2022년) 사업 내용

사업 별칭	운영기간	운영목적	운영내용	운영결과
세종거리 예술가 선발·위촉	2022.3 ~ 11월	지역 예술인 발굴 및 활동·홍보 기회 제공	선발, 발대식, 홍보, 운영, 기타 (기타 사업 연계 섭외 및 거리예술가 활동 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접수 53팀• 최종선발 20팀
찾아가는 공연	2022.3.17 ~ 10.30	버스킹을 통한 거리 활성화 및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세종거리예술가 1팀 30분씩 총 2시간 공연 ※상반기: 1시간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40회 운영• 3,750여명 관람
거리예술가 콘서트	2022.11.6 15:00~20:00 (나성동 도시상징광장)	지역 예술가 간 교류와 공연 홍보 기회 확대	세종거리예술가 1팀 30분씩 총 2시간 공연 ※상반기: 1시간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곳 2회• 300명 관람

찾아가는 공연



거리예술가 콘서트



[그림 4-12] 컬처로드(2022년) 사업

3절 금강보행교 거점 공연(2022년)

- 금강보행교 개통에 따라 문화공연 명소 조성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거점공연 사업 추진
- 대상: 금강보행교를 찾는 누구나
- 내용: 버스킹·거리극 공연, 세종축제 기간 연계 장소특화 프로그램 등
- 관람 규모: 37일 총 123회 공연, 총 7,260명 관람
- 지역 예술인(재단 사업) 연계, 버스킹, 거리극, 점등 행사 등 총 7종 운영
- 예술가 참여: 총 107팀 참여(관내 45%, 관외 55%)

[표 4-11] 컬처로드(2022년) 사업 내용

추진실적	
지역 예술인 연계	• 세종컬쳐로드, 보람동문화거리 등 연계 공연 운영 / 4~11월(총 12일)
버스킹	• <걷다보니, 버스킹>45팀 모집 및 공연 운영 / 6~9월(총 15일)
거리극	• <어쩌다 마주친 공연> 5팀 섭외 및 공연 운영 / 6~9월(총 8일)
장소특화	• 다리 위 서커스 <오! 아시스> 14팀 섭외 및 공연 운영 / 10월(1일)
세종시 연계	• <비단강불빛거리 경관조명 점등행사> 3팀 섭외 및 행사 운영 / 12월(1일)

일상 예술공간으로서 보헤미안 거리(가칭) 기본 구상과 추진전략

1절 비전과 목표

2절 최적 위치 구상

3절 콘셉트 및 사업예산 구상

4절 로드맵

5장

5장 일상 예술공간으로서 보헤미안 거리(가칭) 기본 구상과 추진전략

1절 비전과 목표

1. 비전과 목표



[그림 5-1] 비전과 목표

- 세종시 거리예술공연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시민과 예술인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고자 비전을 『세종시 거리공연 예술 '교차로'』로 제안하고자 함

2. 추진전략

1) 한글 명칭의 전략적 활용

- ‘보헤미안’이라는 의미가 ‘집시’라는 속세적 의미를 띠고 있으므로 예술 거리의 명칭으로서 부적절함
 - ‘보헤미안’이라는 명칭은 “속세의 관습이나 규율 따위를 무시하고 방랑하면서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시인이나 예술가”라는 사전적 의미를 띠고 있음
 - 하지만 ‘보헤미안’은 체코의 보헤미아 지방에 유랑 민족인 집시가 많이 살고 있었는데, 15세기경부터 프랑스인이 집시를 보헤미안이라고 불렸던 것에서 유래됨
- ‘보헤미안’이라는 명칭은 도시 발전과정에서 나온 말로 추정됨
 - ‘보헤미안’이라는 명칭 자체가 보헤미안 지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플로리다 교수가 제안했던 도시 발전상 하나의 평가지표에 불과하므로 예술공간의 이 같은 명칭은 적절치 않음
- 많은 연구자, 예술가, 시민들은 이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음
 - 문화예술과 관련한 전문가 및 예술인도 보헤미안이라는 명칭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따라서 한글사랑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한글 명칭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백성들이 즐기는 여민락의 속성을 포함하며, 아름답고 쉬운 우리말로 명명하는 것을 제안함

2) 예술가 및 시민공연 공존

- 세종시에 조성될 일상 예술공간은 생활문화예술인, 전문예술인 등 모든 예술인의 공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연구에 참여한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은 함께 참여하는 것에 긍정적

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명확한 타겟팅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예술창작의 참여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공간은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공간의 조성을 통해 일상을 누리는 공간에서도 문화예술이 넘쳐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음

3) 세종시 경관 및 자원의 연계·활용 전략

- 세종시의 특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근 경관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이를 상징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한 명칭의 적용이 필요함
(ex) 나성 ○○○의 거리(나성동), 다정한 ○○○ 문화거리(다정동)
- 예술공간의 조성 이후, 주변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선(Line) 형태의 공간형 콘텐츠를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을 더욱 집중도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제안함
 - 이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과 함께 문화예술 속성을 강화

4) 가치누리 문화거리와 전략적 연계

- 2024년부터 진행될 가치누리 문화거리 대상지와 연계할 것을 제안함
 - 가치누리 문화거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읍·면·동 지역에 함께 예술공간의 설치를 제안하여, 효능감의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즉, 가치누리 문화거리에 응모하지 않는 지역은 예술공간 조성을 할 수 없음
- 가치누리 문화거리는 ‘시각’ 예술을 전문적으로 하여 특화하는 한편, 예술공간은 ‘공연’ 예술을 전문적으로 특화하여 다양한 예술을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향유 할 수 있도록 제안함

2절 최적 위치 구상

1. 최적지 선정

※ 최적지 선정의 전제

- 이 연구에서의 최적지는 신도시 권역으로 제한하여 진행함
- 구도심의 경우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조치원역’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을 전제하고 진행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도시 권역 내에서 최적지의 선정을 도출하고자 함

1) 위치 선정 과정

□ 제1차 자문회의 : 세종호수공원, 금강보행교, 금강변, 도시상징광장·세종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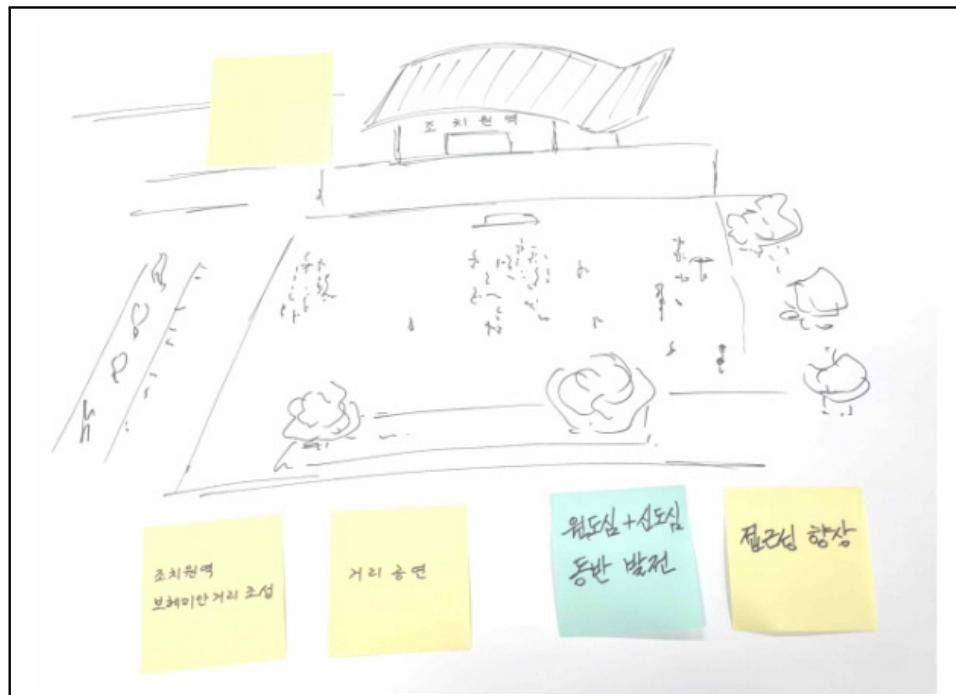
- 제1차 자문회의를 통해 세종호수공원, 금강보행교, 금강변, 도시상징광장·세종예술의전당 사례를 검토하였음
 - 금강보행교를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은 민원의 발생·집객 등 실제로 공연을 진행하는 데 많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논의함

□ 연구진 회의 : 나성동, 도담동, 금강보행교

- 연구진 회의를 통해 일상 예술공간의 대상지 후보로서 나성동, 도담동, 금강보행교를 재선정하여 논의하였음
 - 지역 상권과 연계 가능하고, 상징성을 담보하며, 예술 공연이 가능한 곳으로 도출하였음

□ 미래전략 아카데미 : 조치원역, BRT 정류장

-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미래전략아카데미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조치원역'에 관한 긍정적인 의견이 도출되었음
 - 그리고 신도시 권역에는 BRT 정류장을 미술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도 도출되었음



[그림 5-2] 시민이 제안한 조치원역에서의 공연예술 모습

□ 대상지 현장 조사

- 세종시 관계자 및 내부 연구진은 함께 금강보행교, 나성동, 도담동의 죄적지를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음
 - 현장 조사에서는 예술 공연의 가능 여부, 민원 발생 여부, 집객 문제 등을 다루면서 조사를 진행하였음

□ 거리 예술가 간담회

-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한 거리 예술가 간담회에 연구진은 직접 참여하여 예술인들과 논의하였음
 - 예술인들은 나성동과 도담동이 금강보행교에 비해 선호도가 높았음

□ 전문가 콜로키움

- 이 연구의 중간보고라 할 수 있는 전문가 콜로키움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 및 최적지를 확정하였음

□ 시민주권회의 문화체육관광분과

- 시민주권회의 문화체육관광분과 회의에 참여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일상 예술공간 대강의 최적지와 방향성 등을 검토하였음



[그림 5-3] 최적지 선정 과정

2) 최적지 후보별 분석

※ 최종 최적지 후보 선정

- 일상 예술공간의 조성을 위한 최적지 후보로서 ①금강보행교, ②도담동, ③나성동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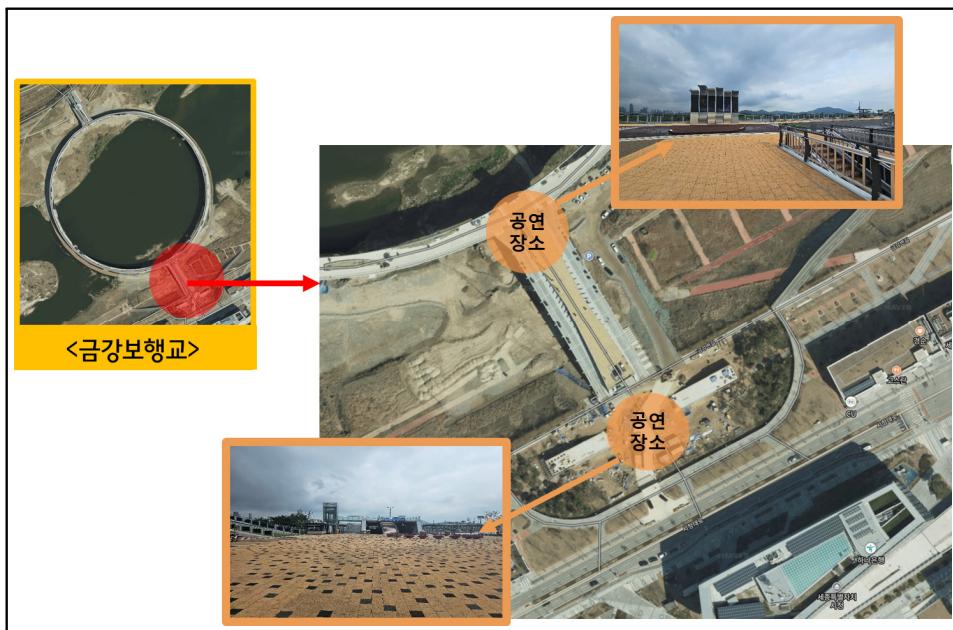
(1) 금강보행교



[그림 5-4] 금강보행교

□ 용도

- 금강보행교의 공연장소는 남쪽 시청과 맞닿아 있는 부분의 광장임
 - 이 구역은 하천구역으로 포함되나 주변 상권과 공공기관이 입지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보라색)’과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노란색)으로 분류됨
- 사진과 같이 전반적으로 주거지역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상업 지역은 사이사이에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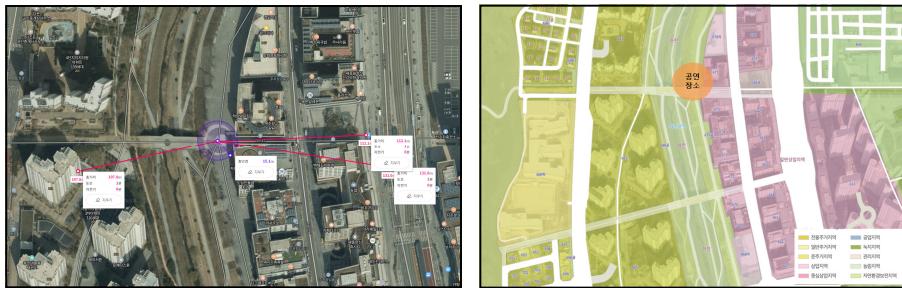
[그림 5-5] 금강보행교

- 금강보행교 내 적합한 공연 장소로는 두 곳으로, 공연장소 A와 B가로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A 구역은 미디어파사드가 위치한 구역으로서 접속교가 위치하여 사람이 모이는 데 용이할 수 있으나, 무대를 보는 시야 및 데크의 위치, 방향 등에 있어 공연예술을 진행하는 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B 구역은 세종시청 앞에서 보행교 진입 시, 펼쳐진 광장구역으로 바닥에 높낮이 차가 없어 공연 관람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넓고 유동 인구가 많아 공연예술을 진행하는 데 A보다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표 5-1] 금강보행교 버스킹 추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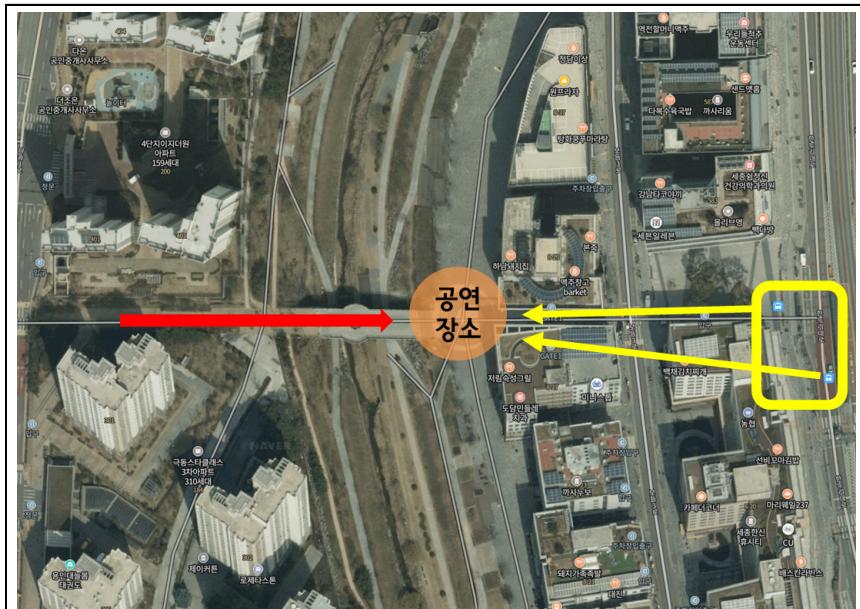
금강보행교 내 접속교, 세종시청 앞		
사진		
장소	미디어파사드/ 미디어풀 (시작 지점 접속교)	세종시청 앞 (시작 지점 접속교 전)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뷰나 위치상으로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구의 앞의 넓은 공간으로 버스킹 공연 자리 확보 편리 필수로 거쳐 가는 길목은 아니나, 어느 정도 유동 인구가 있어 수요가 적지 않을 것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쪽에 튀어나와 있는 계단으로 인해 무대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음 무대 공간 데크도 좁고, 뒷배경이 너무 탁 트여 있어 시야가 오히려 분산될 가능성이 높음 벤치가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 옆면(강)을 바라보고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음 장소가 전체적으로 협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에 단차가 없어 공연 관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2) 도담동



[그림 5-6] 도담동

- 도담동에서 예술 공간이 조성될 만한 장소는 상가밀집 지구에서 아파트 단지로 넘어가는 지역을 이름
- [그림 5-6]에서와 같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집객에는 유리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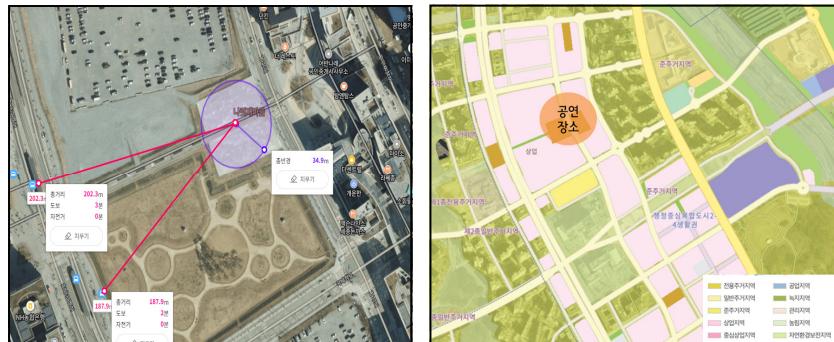
[그림 5-7] 도담동

- 도담동 내 적합한 공연 장소로는 2곳으로, A 구역과 B 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함
 - A 구역은 시계탑이 있는 곳으로 예술 공연을 진행할 시, 분위기 조성이 쉬운 것으로 보이나, 장소가 협소하고 주변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위생시설이 있어 상대적으로 불편함
 - B 구역은 규모는 넓으나, 경사도가 있어 관람 시 불편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아파트와 상대적으로 가까워 민원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큼

[표 5-2] 도담동 버스킹 추천 장소

금강보행교 내 접속교, 세종시청 앞			
사진	장소	장점	단점
	도담동 먹자골목 해뜨락 광장 시계탑	해뜨락 광장 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처에 아파트, 먹자골목 등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이 쉬움 • 바다이 균일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공연 관람 시 불편함이 야기 될 수 있음 • 바로 뒤편에 민가(아파트)가 많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도담동 먹자골목 해뜨락 광장 시계탑	해뜨락 광장 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가 탁 트여 있고,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음 • 여름에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음 • 장소가 무척 협소하고, 공연하기에는 주변 환경이 부적합함(음식물쓰레기 처리기)

(3) 나성동



[그림 5-8] 나성동

- 나성동의 공연장소는 백화점 조성 부지와 근린공원 부지 사이에 있는 광장으로 BRT 정류장으로 가기 위한 길목이 존재함
 - 상업지역이 밀집해 있으나, 공연장소는 광장부지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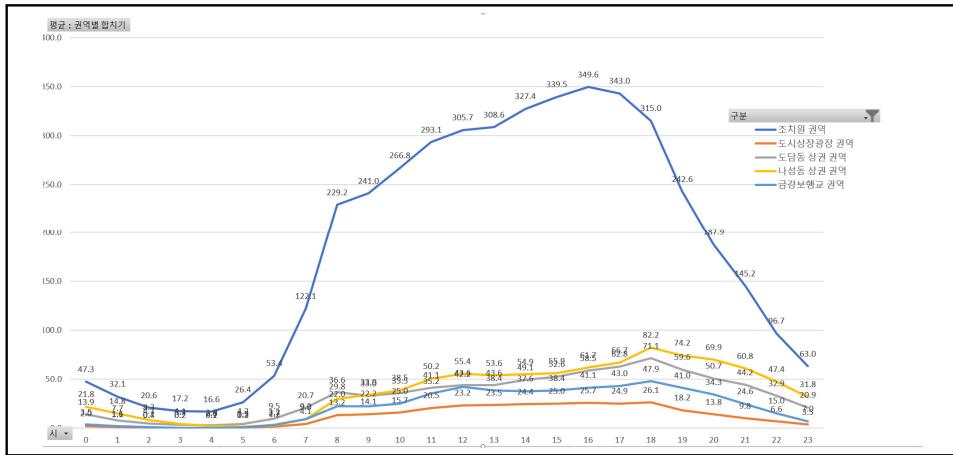
[그림 5-9] 나성동

- 나성동의 최적지는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BRT 버스를 포함하여 네 곳이 조성되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으며, 물리적으로도 공연예술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음
 - 이미 버스킹 공연했던 경험이 있는 곳임

[표 5-3] 나성동 버스킹 추천 장소

금강보행교 내 접속교, 세종시청 앞	
사진	 
장소	나성동 행복도시 2-4생활권 내 백화점 및 U.E.C) 부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처에 버스 정류장 4곳이나 있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님 • 넓은 공간으로 많은 인원수용 가능 및 장비류 설치가 가능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차례 시도된 버스킹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음

3) 위치 선정을 위한 유동 인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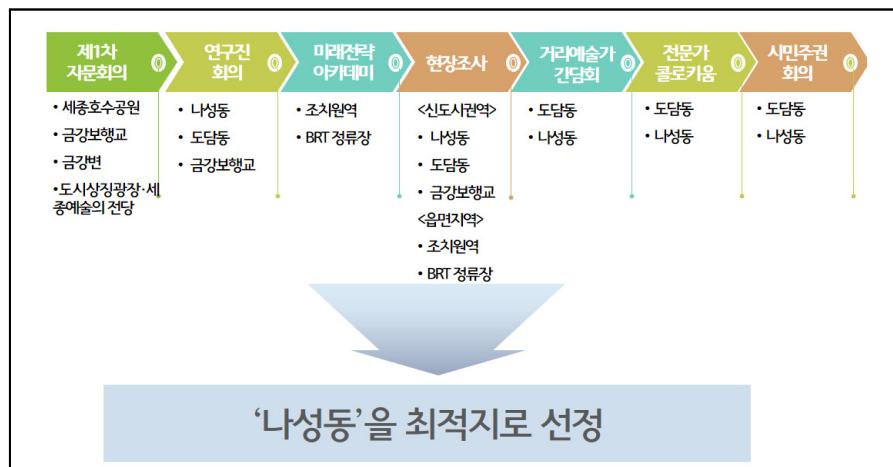
[그림 5-10] 유동 인구 분석

- 유동 인구 분석 결과 조치원 권역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나성동 상권 권역, 도담동 상권 권역, 금강보행교 공원, 도시상장광장 권역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를 통해 조치원역을 구도심권의 일상 예술공간으로 우선 설정하고자 함
- 신도시의 경우에 나성동과 도담동에는 상권이 밀집되어 있어 금강보행교보다는 많은 인구가 지나다니고 있음
 - 나성동과 도담동 상권 권역의 경우 근처에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어 있고, 상권 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의 이유로 유동 인구가 활발함
- 금강보행교의 경우 상권·주거 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산책과 여가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 일상 예술공간을 조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그림 5-11] 각 분석 별 위치 선정 제안

- 유동 인구 분석 결과를 취합했을 땐 나성동, 도담동, 금강보행교 순서로 적합하며 전문가 및 예술가의 의견으로는 나성동과 도담동, 금강보행교 순서로 결론이 나왔음
- 민원 발생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도담동, 금강보행교, 나성동 순으로 뽑혔으며 상징성을 고려했을 땐 나성동이 가장 적합하며 그 외 금강보행교, 도담동 등이 있음
- 위 내용을 통해 보해미안 거리 위치 선정 시 나성동이 가장 적합하며 그 이유는 주거지역 민원 발생의 우려, 도시상징광장과의 연계 가능성, 주변 인접 세종시 최대 상권 및 BRT 탑승객 유동 인구 확보 등이 있음



[그림 5-12] 선정 과정 및 결론

2. 최적 후보지 검토

1) 관련 법 및 계획 검토(나성동 380번지 일대)

(1) 행복 도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 해당 구역은 행복 도시 2-4생활권 내 백화점 및 U.E.C(Urban Entertainment Center)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¹⁾
- 도시계획시설인 광장(일반광장)으로 결정되어 있고, 면적은 5,061m²이며 보행전용도로와 중로1류(폭 20m~25m)에 접함
- 백화점 및 U.E.C 부지는 2-4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특별 계획 구역1로 지정하여 관리함
 - 개발 방향은 특별 계획구역 2와 연계한 개발을 권장하며, 특히 광장은 특별 계획구역 2의 광장을 고려하여 조성하고 도시문화상업가로 (어번아트리움)으로의 연계 동선을 확보하도록 함²⁾
- 또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입지 특성 및 핵심 유치기능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도시교류권역으로 구분하고 광역쇼핑의 중심, 젊음, 패션의 중심 등의 역할을 부여함
 - 권장유치시설에는 백화점, 디자인센터, 이벤트 광장 등이 있음
 - 특히 광장의 조성 방법으로 생활권 내 남북방향의 상업, 수경축(제천-어번아트리움-금강)을 중심으로 보행 결절부에 입지하는 미관광장으로 도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행태를 담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함
 - 또한 다양한 이용층을 위하여 커뮤니티, 이벤트, 휴게, 수공간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광장 이용 프로그램 도입 및 야간 조명 강화로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연출하도록 함

1) 행복청(2023), 2-4생활권 결정조서(51차 실시계획).

2) 행복청(202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1, 2-2, 2-4 생활권).



[그림 5-13] 유동 인구 분석

(2) 도시계획시설(광장) 내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³⁾

-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음
 - 다만, 해당 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
-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받지 않아도 됨(「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53조)
- 해당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건축 또는 공작물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설치하여 함

3) 도로와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점용허가에 대한 관련법이 있으나 광장은 부재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 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이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3절 콘셉트 및 사업예산 구상

1. 콘셉트 구상

□ (1안) 무대 공간만을 설치하는 경우

- 공연예술을 위한 무대만을 설치하는 경우는 공연을 진행하는 무대와 뒷배경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 단기적인 접근을 통해 조성이 가능하지만,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콘셉트임



[그림 5-14] 무대 예시

- 지역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보다 흥미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그림 5-15] 공공디자인

□ (2안) 트러스 시설을 동반한 무대를 설치하는 경우

- 트러스 시설을 동반한 공연 무대를 설치할 수 있음
 - 단기적인 접근을 통해 조성이 가능한 무대 형태로, 날씨에도 큰 영향이 없음
 - 하지만 객석 공간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공연의 집중도가 낮을 수 있으며, 날씨가 불량할 경우 관객이 찾지 않을 확률이 높음



[그림 5-16] 공연 공간 및 트러스 시설

□ (3안) 무대와 객석 공간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 무대와 객석 공간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연과 관람 모두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



[그림 5-17] 무대 및 객석 공간

2. 사업예산

- 전기시설 예산은 현장 상황에 따른 많은 차이가 발생함을 전제로 하고 산출을 진행하고자 함
 - (1안)과 같이 무대만 설치하는 경우 약 15,000천원에서 25,000천원의 소요가 예상됨
 - (2안)과 같이 트러스 시설을 동반한 무대의 경우 28,000천원에서 51,000천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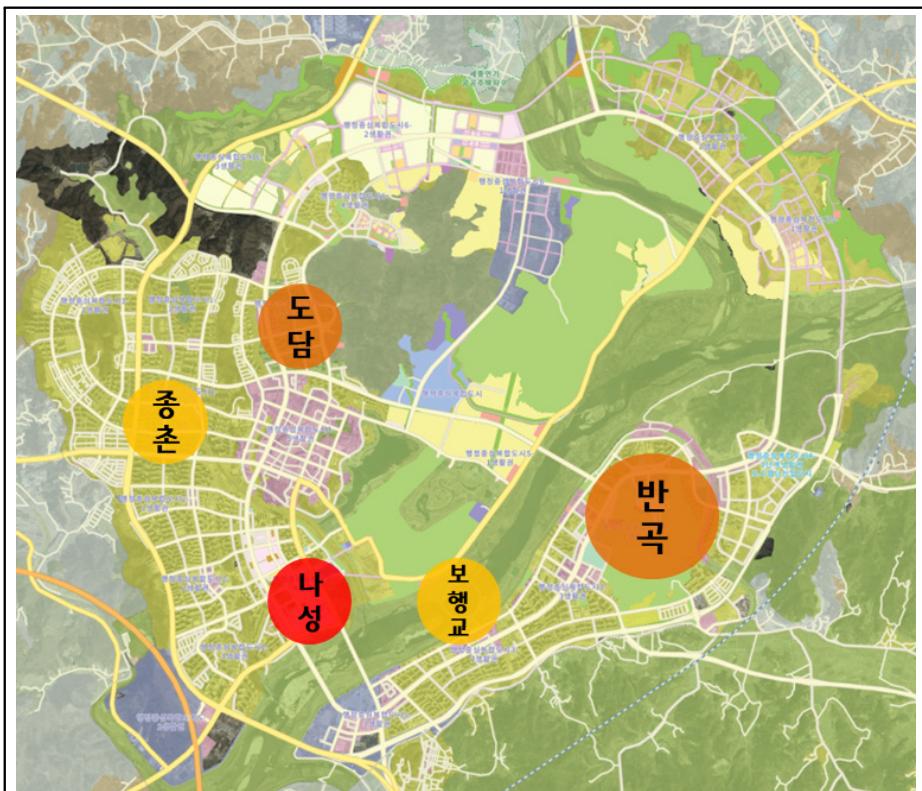
[표 5-4] 무대별 사업예산

무대 유형별 사업예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 10m X 5m 기준 → 1,500 ~ 2,500 [※1혜베(1m X 1m) 당 30~50만 원]• (트러스) 10m X 5m 기준 : 5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혜베에서 평균적으로 곱하기 1.375 아치형의 경우 50혜베 → 75혜베로 산정 - 2,887.5만 원 ~ 5,156.25만 원

4절 로드맵

□ 예술공간 위치에 따른 로드맵

- 이 연구 결과에 따라 나성동을 우선 최적지로 선정하고 신도시 권역의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단기·중기·장기적 로드맵을 나타내고자 함
 - 단기적으로 신도시권은 나성동, 구 도시권은 조치원역 앞으로 제안하고자 함
 - 중기적으로 신도시권은 도담동과 반곡동, 구 도시권은 전의면 왕의 물 시장, 대평시장 주차장으로 제안하고자 함
 - 장기적으로 신도시권은 종촌동, 금강보행교, 구 도시권은 고복저수지와 부강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제안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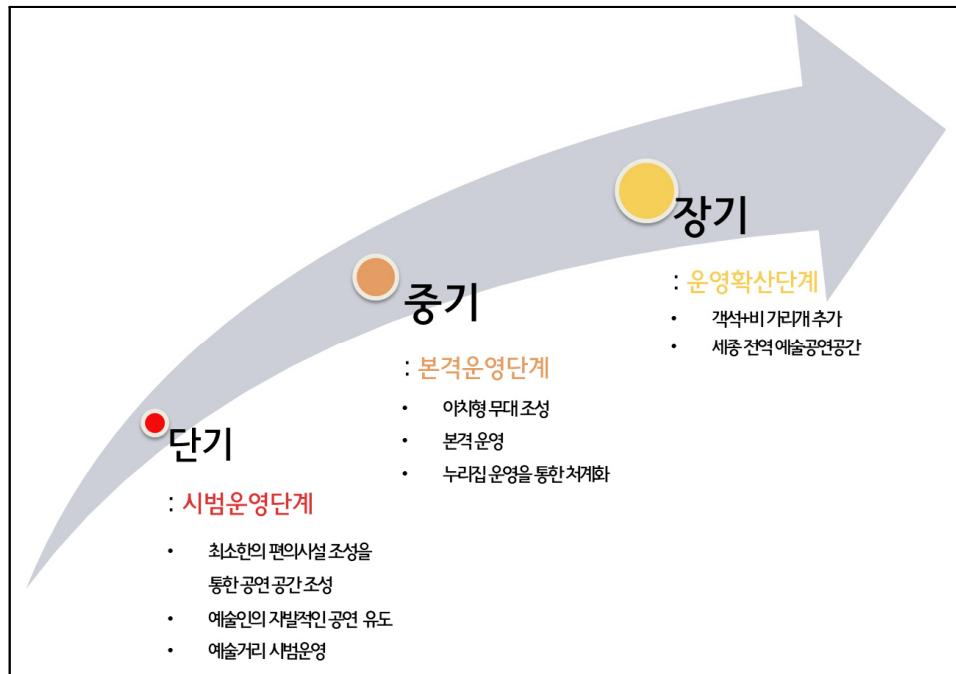
[그림 5-18] 로드맵

[표 5-5] 단계별 사업 위치 표시

구분	위치	
단기	• 나성동(1)	• 조치원역
중기	• 도담동(2) • 반곡동(3)	• 전의면 왕의 물 시장 • 대평시장 주차장
장기	• 종촌동(4) • 금강보행교(5)	• 고복저수지 • 부강시장 공영주차장

- 구분에 따라 단기(나성동, 조치원), 중기(도담동, 반곡동, 전의면 왕의 물 시장, 대평시장 주차장), 장기(종촌동, 금강보행교, 고복저수지, 부강 시장 공영주차장)으로 나눔

□ 운영방식에 따른 로드맵



[그림 5-19] 사업 단계별 내용

- 단기 사업에는 시범운영단계로 최소한의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공연 공간을 조성하고, 예술인의 자발적인 공연 유도, 예술 거리 시범운영을 계획
- 중기 사업에는 본격운영단계로 아치형 무대 조성, 본격 운영, 누리집 운영을 통한 체계화 추진
- 장기 사업에는 운영확산단계로 객석·비 가리개 추가, 세종 전역 예술공연 공간 활성화

결론

1절 연구 결과의 종합

2절 정책 건의

6장

6장 결론

1절 연구 결과의 종합

■ 우리 삶터의 거리, 예술을 입는다.

- 문화예술공간은 인간의 감수성, 공동체 의식 등이 깃든 공간으로 나아가 지역 정체성을 구현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
-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일상을 영위하는 거리와 같은 공간에 다양한 콘텐츠를 입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문화거리’,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등의 형태이며, 지역 출신 인사의 스토리를 활용하거나, 지역의 생업 자원 등을 활용하여 테마 거리의 주제를 구성하기도 함
-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측면, 물리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음
 - 테마거리의 기능적 요소로는 상징적·교류적·문화적 기능이며, 물리적 요소로는 편리성·쾌적성·심미성으로 나타낼 수 있음
- 이처럼 예술 테마거리는 비일상성을 담보한, 비일상적 행위를 통해 공간의 경쟁력을 생성할 수 있으며, 심리적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제3의 장소’로서 기능할 때 가치와 의미가 나타날 수 있음

■ 예술 테마거리, 국내 사례

- 일상 예술공간의 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속성으로 ‘일상성·장소성·예술성’으로 도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사례를 선정하였음
 - 일상 예술 공간으로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이태원 길, 수성못, 홍대 걷고싶은 거리,

- 생활 예술 프로그램 및 플랫폼으로서 고양 버스커즈, 부산 버스킹 플랫폼의 사례를 선정함
- 국내 사례를 통해 명칭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며, 지역자원의 창조적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적합한 운영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 세종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리예술 콘텐츠

□ 가치누리 문화거리

- 가치누리 문화거리는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예술가의 창작 환경의 안정성 제고와 시민 향유권, 소상공인 등 모든 주체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문화정책임
- 2020년 한솔동 노을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2021년에는 한솔동과 종촌동, 2022년에는 고운동과 보람동에서 진행하였음
- 이 사업을 통해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운영 주체로서 시민의 질적 담보를 유도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거리공연·마케팅 등을 통해 거리 콘텐츠 사업의 가능성을 보였음

□ 세종컬처로드

- 세종컬처로드는 일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으로 문화 향유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아마추어 예술가들을 발굴하여 생태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정책임
- 2020년에는 길거리공연 30회·드라이브 인 공연 1회·예술인 포럼 1회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세종 거리 예술가 20팀 선발과 거리공연 30회를 진행하였고, 2022년에는 세종 거리 예술가 20팀 선발과 찾아가는 공연 40회·거리 예술가 콘서트 2회를 진행하였음

□ 금강보행교 거점 공연

- 금강보행교의 지속적인 공연 활동을 통해 공연 공간이라는 인식을 일깨우며, 이를 통한 문화 명소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 2022년에는 버스킹·거리극 공연, 세종축제 기간 연계 장소특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으며, 37일 총 123회 공연, 7,260명이 관람하였음

■ 세종시 보혜미안 거리(가칭) 기본 구상

□ 비전과 목표

- 세종시 거리예술 공간으로서 가칭 보혜미안 거리의 비전을 ‘시민과 예술인이 어우러지는 세종시 거리 공연예술’ 교차로로 정하고, 세종시 관내 거리공연 예술 전용공간의 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써 공간의 명칭으로 ‘한글’의 활용이 필요하고, 예술가·시민 공연이 공존할 수 있으며, 세종시 경관·자원의 연계 활용을 통해 특화성을 담보하고, 가치누리 문화거리와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전략을 제안하였음

□ 최적지 구상

- 최적지로는 신도심권에는 나성동을, 구도심권에는 조치원역 전정을 제안하였음
- 공간의 콘셉트로는 트러스 시설을 동반한 무대를 제안하였으며, 개략적인 예산을 제안하였음

□ 로드맵

- 예술공간 위치에 따른 로드맵으로 단기(나성동, 조치원역), 중기(도담동·반곡동), 장기(종촌동·금강보행교)로 제안하였고, 운영방식에 따른 로드맵으로 시범운영 단계 - 본격운영 단계 - 운영확산 단계로 제안하였음

2절 정책 건의

■ ‘보헤미안’을 대신할 만한 명칭 찾기

- 세종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상 예술공간’의 성격상 ‘보헤미안’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대신할 만한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민과 예술가들의 공감을 담보하고, 지역적 특색을 함의하거나, 아름다운 한글로 이루어진 단어의 명칭을 찾아야 함
 - 주민 공모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사업추진 방식 정하기

- 가치누리 문화거리와 연계하여 시각 예술은 가치누리 문화거리가 담당하고, 공연예술은 보헤미안 거리(가칭)가 담당하는 방식을 제안
 - 같이 보는 문화거리, 같이 듣는 문화거리 등의 명칭도 고려할 수 있음
- 예술 장르를 거리별로 특화하여 예술가들의 균형적인 참여와 함께 시민에게 다양한 예술 장르의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거리공연 관련 조례제정

-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제안함
- 이 조례에서는 음향시설의 음량, 활동 시간 등을 삽입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순환 체계를 구현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에서도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까지 진행되었으나, 이후 추진이 안 된 상태이므로 이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미영, 문정민(2010), 도시재생 관점에서 문화의 거리 공간 특성 분석석: 국내 문
화의 거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19/6), 161-168쪽
심수연(2020), 국내 여성 예술인 기념공간의 스토리텔링 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이승훈, 안건혁(2012), 거리공연자들의 공연장소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
계학회지(13/3), 69-82쪽
이형복(2018),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가로환경 테마, 특화시범거리 연구, 대전세종
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Jacobs, Jane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Second Edition, Random House, New York. pp.56-70.
Schuster, J Mark 2001, 'Ephemera, Temporary Urbanism, And Imaging',
Imaging the City Continuing Struggles and New Directions, CUPR
Books, New Jersey.
Whyte, William 1980,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 First
Edition, Project for Public Spaces, New Yprk. pp.94-112.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08
www.dsi.re.kr

ISBN 979-11-6075-394-3 93350